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마을활동가 400인이 기록한 변화의 증거들

제2020-03-005호

제2020-03-005호

코로나 뉴노멀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지원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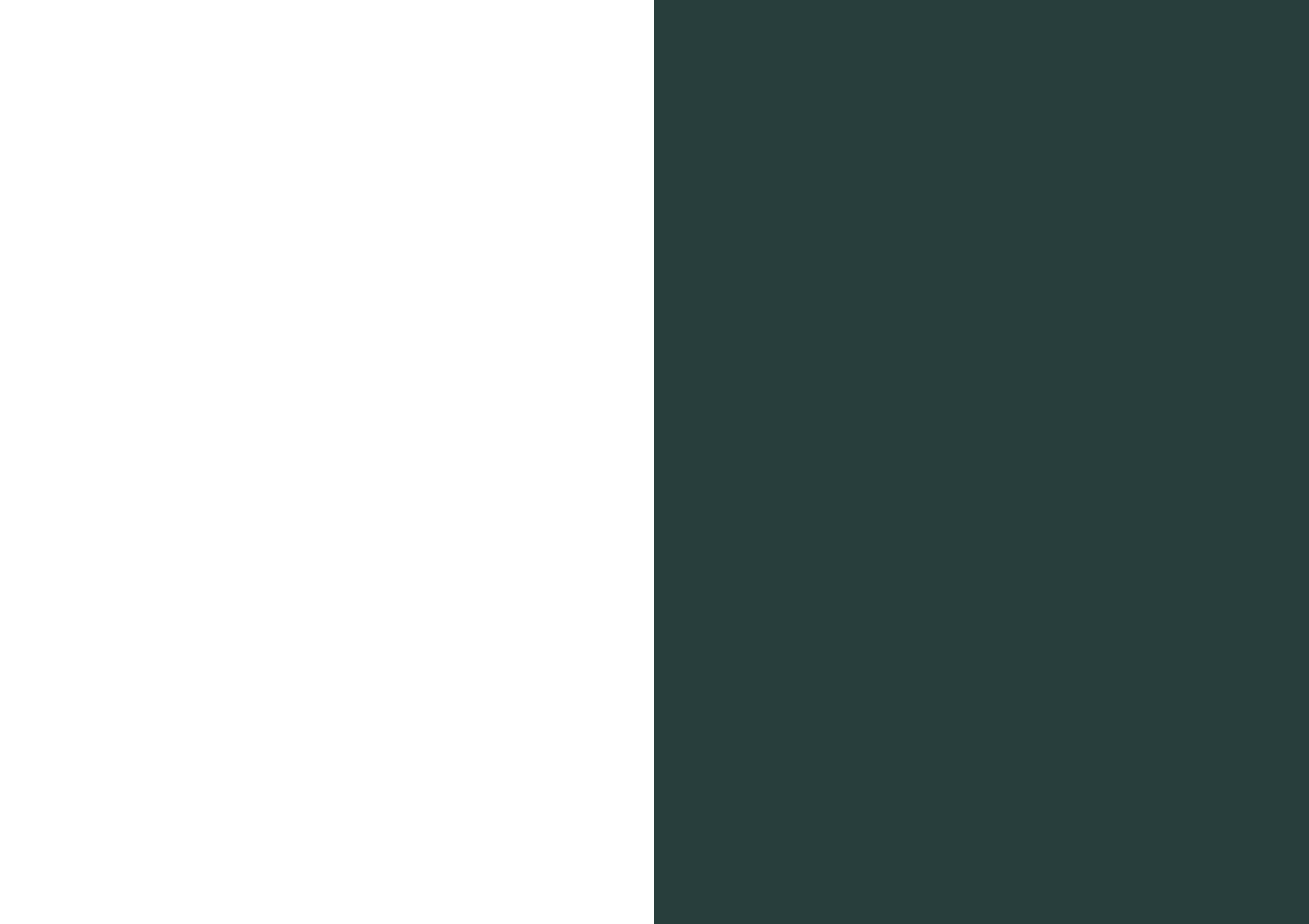
: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마을활동가 400인이 기록한 변화의 증거들

코로나 뉴노멀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지원방향

코로나 뉴노멀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지원방향

: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마을활동가 400인이 기록한 변화의 증거들





제출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
- 연구명 : 코로나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방향
 - 연구기간 : 2020. 9. 2 ~ 11. 13
 - 연구수행기관 : 레드실버브론즈(협력기관 : 다양성임팩트연구소)
 - 연구 및 집필진
 - 책임연구자 : 조수빈(레드실버브론즈 대표)
 - 공동연구자 : 김현아(레드실버브론즈 객원연구원, 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 학술용역 관리책임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전민주

전략사업실장 : 이지연

정책 TF : 손병호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발주처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014
I 서론	
1. 배경	022
2. 방향과 목적	027
3. 연구개요	029
4. 세부내용	030
II 코로나19와 마을 : 마을을 기록하다	
1. 재난회복력과 마을공동체	040
2. 조사내용 및 응답자 특성	044
3. 마을의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 현황과 의미	050
4. 코로나 19와 마을의 변화	071
III 뉴노멀과 마을 : 변화의 리트머스, 마을	
1. 디지털 전환이 전환할 수 없는 것, 돌봄	089
2. 회복력의 핵심, 전국민 고용보험의 근간 로컬경제	093
3. 필수 생존 의제 마을공간과 미디어	098
4. 뉴노멀 뉴퍼블릭	105

IV 마을의 제안 :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1. 총론	114
2. 마을 돌봄 안전망 강화	118
3. 마을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121
4. 마을미디어와 마을공간 확대	124
5. 마을공동체(주민모임)를 주체로 하는 상설 재난대책본부 구축	126

참고문헌	128
------	-----

부록

1. 디지털 전환이 전환할 수 없는 것, 돌봄	134
2. 회복력의 핵심, 전국민 고용보험의 근간 로컬경제	150

표차례

표 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의원실 <2019 하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및 서울시 제공 코로나 자치구별 확진자수	023
표 2. 설문조사 대상별 현황 및 설문내용	030
표 3. 자치구별 응답 세부 현황	031
표 4. 자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관련 마을자치공동체 활동내용 정리> 중	033
표 5. 심층인터뷰 대상자 현황	035
표 6. 문헌조사 현황	036
표 7. 설문조사 항목	044
표 8.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성별/연령대)	046
표 9.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마을지기 직업/고용형태)	047
표 10. 응답자 지역별 분포(마을지기/지원그룹)	048
표 11. 마을지원그룹 응답결과표	052
표 12.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결과총괄표	054
표 13.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결과 자치구별 총괄표	055
표 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코로나19 관련 마을자치공동체 활동내용 정리(0707)>	058
표 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코로나19 관련 마을자치공동체 활동내용 정리(0707)-초기대응>	059
표 16. 마을지원그룹 심리방역 활동 상세 내용	060
표 17.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필요지원	064
표 18.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마을공간 운영 여부별 이유	065
표 19. 마을지원그룹의 코로나19 발생 후 지원사업 상황 응답	066
표 20. 자치구별 마을지원그룹/마을지기 응답 세부 현황	068
표 21. 코로나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	071
표 22.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만족도	073
표 23.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을공동체 활동 진행 방식	074
표 24. 마을지기의 마을공동체 활동 반경	075
표 25. 온라인 소통/비대면 방식 활용 정도(마을지기)(단위 : %)	078
표 26. 온라인 콘텐츠 활용 정도(마을지원그룹)(단위 : %)	079
표 27.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제약 요인(중복응답)	080
표 28. 코로나19 이후 마을지기들이 겪는 어려움(중복응답)	081
표 29. 마을지기(코로나 이후)와 일반인구집단(코로나 이전)의 스트레스 인지율 비교	084
표 30.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따른 어려움	103

그림차례

그림 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의원실 <2019 하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024
그림 2. 자료: 에버스코어ISI “소득격차 커지는 미근로자”	025
그림 3. 재난회복력의 5대 영역(Cutter et al., 2010) 재구성	041
그림 4.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코로나19 극복활동 참여여부	050
그림 5. 마을지기 코로나19 극복 활동유형	051
그림 6.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코로나19 극복활동 효과 응답	060
그림 7.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재난시 마을공동체 지원 필요여부	062
그림 8. 마을지기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코로나19 활동 효과	063
그림 9.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 필요지원에 대한 질문(마을지기)와 공간운영여부(마을지원그룹)	065
그림 10.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분야 및 목적(단위 : %)	072
그림 11. 코로나시기 대면형 마을공동체 활동 유무	074
그림 12. 마을공동체 활동 규모와 만남횟수	076
그림 13. 코로나 이전/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중복응답)	077
그림 14. 코로나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여부	079
그림 15. 전년 대비 월평균소득의 변화(마을지기 응답)	082
그림 16. 응답자 고용형태별 전년 대비 월평균소득 변화(마을지기 응답)	083
그림 17. 서울마을주간 기획컨퍼런스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 김주현 팀장 발제자료 발체	103
그림 18. 마을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방향	117

사진차례

사진 1. 금천구 상가지역 소독 자원활동(서흥교 제공)	053
사진 2. (좌) '힘내라 양천! 마스크 전달식' - 양천구 마을지원센터 제공 (우) 독산마루 마스크 제작 현장-서흥교 제공	055
사진 3. (위좌) 홀몸어르신 반찬나눔 현장-기사서치 (위우) 강서구 꾸러미 제작 현장-윤성미제공 (아래좌) 양천구 행복밥상꾸러미 현장-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제공 (아래우) 강서구 이대목 동병원 꾸러미 전달 현장-윤성미제공	057
사진 4. (좌) '2020양천구마을공동체' (우) '위캔두 캠페인 사진 - 양천구마을지원센터 제공	070
사진 5. (좌) 삼양동 마을관리소 개소 사진 (우) 노원구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낙상에 방 운동 교육 사진 - 출처 : 이동규 페이스북	092

들어가며

들어가며

“취약아동 58.7% 한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거나 연기.. 사실상 방치”,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률은 3.62배인 10.66%.. 마스크보급이 대책의 전부”,
“고독사 작년 한해 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위험가구 케어 사실상 불가능”,
“국가와 기업, 개인들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 회복’ 양상.. 굳어져”

“K-방역”이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진 한국사회의 민낯,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하반기에 받아 든 상반기 성적표는 전례 없는 이 재난이 누구에게 더 가혹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해왔던 한국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나라 안팎으로 위기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이른바 “K-방역”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지만 “K-돌봄은 0점이었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국가의 관리와 통제 속에 공공성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종교·의료계는 이해관계의 민낯을 드러내고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제도 밖으로 밀려 아슬아슬하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이 IMF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이들을 불안 속으로 떠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했고,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공공기관이 폐쇄되자 특정된 소수가 모이는 자발적 주민그룹은 조직되지 않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며 취약계층을 살피고 스스로의 고립을 막기 위한 자구책들을 마련했다. 재난 이후 재난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되찾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향후 빠르게 적응해야 할 세계는 어떤 것일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굶직한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않으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마을단위, 마을주민과 활동가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는다.

이들 자발적 주민그룹은 코로나19 확산되는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규모 등을 축소”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더 취약한 이웃을 지원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국가의 지침을 따르고 마을지원그룹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던 각자 놓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았다. 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이 한 활동유형은 방역(소독) 봉사와 마스크 제작 등 ‘방역 및 예방활동’이었고 이 자발적 시민그룹이 코로나19 기간 동안(20년 2월 ~ 현재) 만든 마스크수는 서울시 전역 취약아동과 장애인 전체에게 1매씩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였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문제 해결에 경험이 있는 자생적 주민모임들은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위기 속 공공기관 전면 폐쇄에 따른 공적 서비스 부재와 동시에 이동제한에 따른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높은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도 큰 사고 없이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설문응답자의 68%)은 근린생활권 내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 분산된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의 절대다수(94.1%)는 전년에 비해 월소득이 줄었지만 경제적 어려움보다 관계망 축소에 따른 고립을 더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홀로 돌봄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위기의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시기 희망의 씨앗이 되었던 마을공동체의 작은 시도와 활동을 마을회복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재난이 상시화 되는 시대 마을공동체의 유의미성을 확인했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마을활동을 기록하고 의미를 되짚으며 이 코로나19 라는 재난이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II 장). 이를 위하여 총 400여명의 마을지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안자)와 마을지원활동가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더불어 서흥교(금천구), 김선정(금천구), 박진갑(양천구), 윤성미(강서구), 김지연(성북구), 이동규(강북구), 강봉심(노원구), 유창복(미래차지분권연구소) 등 8명의 인사인터뷰로부터 뉴노멀 진단과 향후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듣는다(III 장).

이들은 디지털 전환이 전환하지 못하는 돌봄 문제를 뉴노멀 시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K-방역’의 핵심 비법으로 꼽히는 높은 시민의식의 근거를 위기극복이자 회복의 주체인 마을주민과 마을활동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스스로의 심리적 방역 활동의 토대였던 마을공동체 활동이 그야말로 돌봄안전망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마을활동을 사회적 돌봄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위기극복 주체로서의 주민모임을 인정하는 담론으로써의 ‘참여소득’을 제안하며 로컬회복력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마을 문제 해결과 일자리를 연계한 마을관리소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필수생존 의제로 등장한 마을미디어 교육의 확대와 새로운 재난대응공간

으로써의 마을공간 확대와 함께 마지막으로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마을의 자생적 주민모임과 지원그룹, 지자체, 정부 간 긴밀하게 연결된 주민모임 주도의 마을 재난수습본부를 제안한다(IV장).

이번 연구결과물은 이전의 변화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 새로운 표준은 국가단위로부터 탑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부터 대비하고 재정비하여 버텨야 실질적 변화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400여명의 주민, 활동가들과 함께 만든 이번 연구결과물을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당부드린다.

I

서론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 김화숙 의원이 밝힌 <2019 하반기 서울시 복지상황지도>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여성 제외)은 총 2,422,739명, 서울시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된다. 서울시 인구의 25%가 제도 밖으로 몰린 셈이다.

1. 배경 : 커지는 불평등의 증후, 위기 속 등장한 공백을 메우는 마을 사례

표 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의원실
<2019 하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및 서울시 제공 코로나 자치구별 확진자수

자치구	인구수	노인수(2019년)		아동수(2019년)		장애인수(2019년)		여성수(2019년)		코로나 확진자수 (20.10.29)
		명	%	명	%	명	%	명	%	
강남구	542,364	66,957	12.3	48,217	8.9	15,300	3.0	282,753	50.5	322
강동구	427,573	58,669	13.7	30,879	4.9	17,437	4.0	215,757	50.5	202
강서구	596,949	79,445	13.3	28,328	4.7	28,861	5.0	306,870	51.4	300
강북구	319,164	58,103	18.2	19,824	6.2	17,472	5.0	163,093	51.1	156
관악구	501,957	71,888	14.3	33,219	6.6	20,233	4.0	249,797	49.8	466
광진구	355,559	45,432	12.8	20,665	5.8	12,552	4.0	182,765	51.4	137
구로구	404,497	61,105	15.1	13,302	3.3	17,861	4.0	204,080	50.5	201
금천구	233,917	35,354	15.1	24,007	10.3	11,306	5.0	115,002	49.2	98
노원구	543,752	77,032	14.2	29,853	5.5	27,357	5.0	279,833	51.5	331
도봉구	339,413	55,926	16.5	33,853	10.0	15,415	5.0	173,253	51.0	225
동대문구	348,052	56,991	16.4	23,762	6.8	15,803	5.0	174,485	50.1	175
동작구	396,203	59,265	15.0	24,594	6.2	14,709	4.0	203,670	51.4	260
마포구	375,077	50,544	13.5	30,582	8.2	13,113	3.0	195,837	52.2	183
서대문구	310,313	50,045	16.1	25,070	8.1	12,619	4.0	160,744	51.8	137
서초구	433,951	54,663	12.6	34,619	8.0	10,531	2.0	226,083	52.1	224
성동구	308,221	42,629	13.8	21,156	6.9	11,753	4.0	156,862	50.9	134
성북구	435,868	67,646	15.5	16,854	3.9	17,615	4.0	223,964	51.4	347
송파구	666,635	81,211	12.2	28,518	4.3	20,202	3.0	343,109	51.5	381
양천구	464,185	57,941	12.9	42,402	9.1	17,422	4.0	235,551	50.7	189
영등포구	367,778	54,906	14.9	25,178	6.8	14,444	4.0	184,554	50.2	208
용산구	228,999	37,212	16.2	13,247	5.8	8,043	4.0	118,359	51.7	143
은평구	483,197	77,263	16.0	18,989	3.9	21,634	4.0	249,495	51.6	264
종로구	153,065	26,572	17.4	7,672	5.0	6,040	4.0	78,240	51.1	95
중구	125,725	21,750	17.3	6,933	5.5	5,696	5.0	63,778	50.7	65
중랑구	403,209	61,748	15.3	27,993	6.9	20,306	5.0	202,790	50.3	209

코로나19 붕괴된 돌봄체계, 더욱 취약해진 취약계층

-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다소 주춤해진 2020년 3/4분기,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로 극명한 상황을 드러내는 우울한 통계들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취약계층은 더욱 취약해졌고 회복의 시간 또한 공평하지 않았다.

- 국회 정무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6천여명 중 월 평균 2만4천여명(42.3%)만이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으며, 나머지 3만2천여명(58.7%)는 단 한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상담으로 대체되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취약계층 비율은 인구의 2.94%이지만 코로나19 감염률은 이의 3.62배인 10.66%로 나타났다. 백종현 의원은 "취약계층의 코로나19 대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리처방이 사실상 전부였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67조)을 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8월까지의 고독사(118명)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고독사수(69명)를 이미 훌쩍 넘었다. 대면사업이 중단되며 1인 위험가구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 굿네이버스가 만 4~8세 아동과 보호자 6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한 아동 비율은 2018년 49.9%에서 2020년 64%로 늘었다.

- 노원구만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강동구 새마을부녀회 등 생산량이 소량이라 MB필터(멜트블로윈 부직포) 구입이 어려웠던 주민참여형 마스크생산업체 46곳에 필터 74만 개를 지원했다.

2. 방향과 목적

코로나19 재난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마을회복력 정의 및 가시화

-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공공기관이 폐쇄되자 특정된 소수가 모이는 자발적 주민 그룹은 조직되지 않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과 나눔의 사례를 만들어내며 취약한 이웃을 살피고 스스로의 고립을 막기 위한 자구책들을 마련했다.

-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마을지기(적극적 주민그룹)와 마을활동가, 마을지원그룹의 재난시 활동과 역할로부터 뉴노멀 시대의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산시기 희망의 씨앗이 되었던 마을공동체의 작은 시도와 활동을 마을회복력 관점에서 살펴본다.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발굴된 주민조직(이하 마을지기)과 마을자치센터 등 마을지원그룹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코로나 위기 극복 활동(이하 코로나19 극복활동)¹⁾을 통해 재난 후 회복속도의 격차를 줄이는 기초 체력으로써의 마을의 회복력을 정의하고 회복력의 근간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재난 극복 과정에서의 마을의 경험을 통해 뉴노멀 진단과 방향 제시

- 생활문화 전반 이전의 변화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요구되는 뉴노멀 시대,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사회 구성을 위한 ‘뉴노멀’은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지 활

1) 코로나19 범유행기간(2020년 1월 8일 첫발생부터 현재까지)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제작과 같은 방역 및 예방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돌봄, 경제 활성화 관련 활동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컫음.

동과 생활이 근린생활권에서 양립되어 있는 마을지기의 생활과 활동의 변화를 통해 진단해본다.

- 재난상황에서의 개별의 어려움과 활동변화, 재난시 마을활동의 의미와 성과를 묻고 듣는다.

뉴노멀에 대응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방향 제시

- 민선 6,7기에 걸쳐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협치, 주민자치, 복지(찾동) 등 행정과 정치 혁신을 정책적 성과와 소셜임팩트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마을정책 2기 중반을 경과하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강타한 2020년을 경과하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은 협치, 주민자치, 찾동 등의 성과를 아우르고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사는 주민들이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의제 개발과 동시에 향후 변화에 맞는 정책 프로세스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국보호와 이질적 존재에 대한 배척이 팽배해질 바이러스 시대, 연대와 호혜적 관계망을 특징으로 하는 특정한 소수 자생적 주민조직의 다양화와 연대를 통한 규모화 라는 방향 속에서 뉴노멀에 맞는 마을공동체 정책 담론과 의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개요

연구명

코로나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방향 연구

연구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과 마을활동의 변화,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마을활동의 의미와 지원 정책 욕구를 데이터로 검증하여 본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과 위험이 상시화된 뉴노멀 시대의 마을공동체 지원체계와 마을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 코로나 대응 개별 마을활동의 사회적 성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시화
-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의미화
- 새로운 마을활동 지원체계 및 정책 제언의 단초 마련

연구방법

- 코로나19 극복 경험 현황 취합 및 마을지기 지원방향 조사 분석
- 트렌드 분석을 위한 국내외 기초 사례 조사
-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 새로운 정책 의제별 마을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마을지원그룹 인터뷰/분석

4. 세부내용

(1)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내용

○ 자치구별 지원조직이 주관한 코로나19 극복 활동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 취합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마을지원그룹²⁾과 2019년, 2020년 마을지기(공모사업 제안자) 등 총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³⁾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0년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총 5일간 구글설문양식을 활용한 Web서베이 방식으로 진

표 2. 설문조사 대상별 현황 및 설문내용

구분	마을지기	마을지원그룹
대상내용	2019,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표제안자1 또는 2	중간지원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중구 제외 24개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및 자치지원단 구성원
대상자수	1208명 - 19년: 446명 - 20년: 762명(대표제안자1 382명/대표제안자2 380명)	329명 - 마을자치센터/주민자치사업단 : 171명 - 동자치지원관 : 158
응답수	297명(24.6%)	99명(30.1%)
설문응답수	객관식/40+α개	객관식+주관식/20+α개
설문내용	- 코로나19이전(2019년 한해)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을활동가의 상태 - 코로나19 시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평가 - 코로나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망과 정책과제	-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자치구 마을공동체 활동현황 -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정책

- 2) 마을(자치)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동주민자치지원관 등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조직으로 한정함.
- 3) 대상별 설문지 별첨.

행되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에서 2월부터 6월까지 월단위로 구별 코로나19 극복 활동을 취합하였으며, 21개 자치구 총 81건의 대응사례를 별도 분석한 내용⁴⁾은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특징을 분석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 설문 답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더불어 언론 검색을 통한 기사자료를 함께 참조하였으며 일부의 경우 개별 연락하여 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응답현황

○ 마을지원그룹 대상 설문 결과⁶⁾, 지원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 마을·자치공동체를 지원하는 기관 구성원 9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은 응답한 전체 24개구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방역봉사활동은 15개구에서 진행되었다.

○ 마을지기 대상 설문의 경우, 2019~20년 공모사업 참여 주민모임 947개 대상으로

표 3. 자치구별 응답 세부 현황

자치구	설문 응답 여부	코로나19 대응활동 여부	마을자치센터현황			주민자치회현황(17-19)		마을지기(19~20년) 설문현황				방역 활동 여부	
			유무	연차	유형	유형	시범 동수	위원 총수	마을 모임수	설문 응답수	코로나 시기활동수		코로나대응 활동수
강남구	○	×	○	3	위탁	계획	2	0	115	34	21	7	×
강동구	○	○	○	8	위탁	위탁	5	215	10	3	1	0	○
강서구	○	○	○	7	위탁	통합	5	237	64	26	20	10	×
강북구	○	○	○	8	위탁	통합	5	249	19	9	6	4	○

4) 자료 : <코로나19 관련 마을·자치공동체 활동내용 정리(0707)>

5) 서울협치담당관-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6) 25개구 중 중간지원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 지원그룹 설문조사 진행

7) 자치구별 마을지기 응답수는 활동지가 아닌 마을지기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자치구	설문 응답 여부	코로나19 대응활동 여부	마을자치센터현황			주민자치회현황(17-19)			마을지기(19~20년) 설문현황				방역 활동 여부
			유무	연차	유형	유형	시범 동수	위원 총수	마을 모임수	설문 응답수	코로나 시기활동수	코로나대응 활동수	
관악구	○	○	○	7	위탁	통합	6	222	12	6	4	4	○
광진구	○	○	○	7	위탁	통합	4	234	75	22	13	4	○
구로구	○	○	○	8	위탁	통합	10	178	124	29	19	10	○
금천구	○	○	○	8	위탁	통합	10	336	75	35	26	21	○
노원구	○	○	○	7	위탁	통합	6	232	4	2	1	1	○
도봉구	○	○	○	8	위탁	통합	9	406	62	21	14	3	○
동대문구	○	○	○	5	위탁	통합	5	212	11	3	1	1	○
동작구	○	○	○	5	위탁	통합	5	214	19	3	0	1	○
마포구	○	○	○	8	위탁	통합	5	249	19	9	6	4	×
서대문구	○	○	○	8	위탁	통합	5	248	15	7	6	3	○
서초구	○	○	○	7	위탁	통합	×	0	8	2	2	2	×
성동구	○	○	○	8	위탁	통합	8	352	43	10	6	5	○
성북구	○	○	○	8	위탁	직영	10	501	15	6	3	1	○
송파구	○	○	○	6	위탁	직영	6	274	9	2	1	1	○
양천구	○	○	○	7	위탁	통합	5	215	37	9	6	5	×
영등포구	○	○	○	7	위탁	통합	5	196	72	14	8	5	○
용산구	○	○	○	4	위탁	통합	5	237	5	1	0	0	×
은평구	○	○	○	8	위탁	통합	5	217	51	18	15	8	×
종로구	○	○	○	7	위탁	통합	3	106	15	3	2	0	×
중구	×	×	×	×	×	×	×	0	4	2	2	0	×
중랑구	○	○	○	8	위탁	직영	5	215	43	22	21	11	×
총계							5	5,543	947	297	204	111	15

2020년 대표제안자 1과 2인 762명과 2019년 대표제안자1인 446명 등 총 1208명에게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이 중 297명이 응답, 24.6%의 응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극복활동을 1회 이상 진행하였다고 응답한 마을지기수⁷⁾ 11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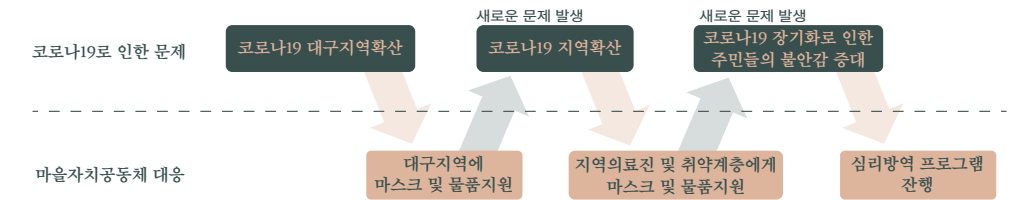
3) 특징 및 한계

○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역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2020년 2~4월) ① 마스크 제

작 및 배포 ② 나눔활동 ③ 캠페인 등 심리적 방역 활동 ④ 영상제작 ⑤ 모금 등 5가지 활동 유형으로 정리하여 활동별 규모를 파악하고 활동의 성과와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광역센터 1차 파악한 초기대응 결과를 포함하여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2020년 2~10월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되짚고 향후 지원 정책 전환 방향과 과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활동의 애로점과 지원 정책 평가, 정책과제를 묻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표 4. 자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관련 마을·자치공동체 활동내용 정리> 중

구분	총계	지역단위 활동(서울시)	대구·경북 지원	기타 지역 지원
모금액	11,221,500원	6,294,000원	4,297,500원	-
마스크 제작 및 배포	17,878+매	17,778+매	100+매	-
나눔활동 (마스크 배포제외)	42	37	1	4
심리적방역활동	7	7	-	-
영상제작	7	7	-	-



○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 취합과 관련하여, 마을지원그룹 대상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광역센터 분석자료와 타 기관의 관련 보고서⁸⁾를 참조해 내용을 보충하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의 의미와 더불어 수치화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가시화 되어 있는 마을의 주민 활동을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내용과 더불어 횡수, 참여자수 등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활동은 있었으나 참여인원을 파악하

8) 서울형치담당관-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지 못한 경우 혹은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제작활동은 파악되거나 제작갯수 등이 집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참여인원의 경우, 마을지원그룹의 설문 내용 중 파악된 수와 위기 극복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마을지기들 중 파악된 참여인원수를 합하되 횟수와 관계없이 1회당 인원수로 잡았으며, 지원조직에서 확인된 극복 사례 활동 중 방역활동은 주민자치회 주도로 진행된 활동으로 파악되어 진행 횟수별 누적인원이 아닌 1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수로 참여인원을 일괄 적용하였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수의 경우, 구별로 주민자치회 확대설치 속도에 편차가 확인되어 주민자치회 사업 초기 시범동에 한하여 파악된 총위원수를 참조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에 참여한 인원 혹은 제작갯수 등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동제한과 같은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마을활동을 하는 주민 규모와 이들 활동의 사회적 임팩트를 가늠해보고자 함이었다. 표 등으로 정리한 코로나19 극복 활동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규모와 임팩트 확인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 마을지원그룹의 경우, 범유행시 지원 애로점과 지원의 태도 변화 등과 향후 마을지원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등의 파악을 위한 설문항목도 구성하였으나 기관당 1인 이상의 구성원이 설문에 응하다보니 답변내용이 상이할 시 취사선택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여러 답변 중 취사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질문 성격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답변을 선택하거나 다수가 선택한 답변을 자치구별 지원조직의 공식입장으로 정리하였다.

○ 마을지원그룹 외 설문 대상자였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표제안자인 마을지기의 경우, 2019~20년 사업대상자로 선별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활동 변화 파악을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활동과 더불어 향후 지원 과제 등을 객관식 형태로 질문하였다. 생애 중 마을 관련 활동 총 연수가 '1~3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아 마을활동 연차별 활동분석은 생략하였다.

(2) 심층인터뷰

1) 대상 및 내용

○ 심층인터뷰는 ①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특징 ②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 정책 과

표 5. 심층인터뷰 대상자 현황

구분	자치구	이름	소속/직책	활동내용	코로나19 대응활동
마을지기	금천구	서흥교	독산마루/대표	마을활동7년/마을공간운영3년	마스크제작공간제공 등
마을지기	금천구	김선정	건강한농부협동조합/전 이사장	마을활동10년/마을기업대표	어르신반찬꾸러미나눔
마을지원 그룹	양천구	박진갑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마을지원 3년차	캠페인,꾸러미제작 등
마을지원 그룹	강서구	윤성미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총괄국장		캠페인,꾸러미제작 등
마을지원 그룹	성북구	김지연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교육총괄	마을활동6년 /주민자치회지원4년	마스크제작, 방역 등
마을지원 그룹	강북구	이동규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시민단체30년/로컬랩3년	안부물기 등
마을지원 그룹	노원구	강봉심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16년/로컬랩3년	병원자원활동지원
전문가	-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소장	광역센터센터장/로컬랩컨설턴트	-

제 ③ 뉴노멀 진단과 정책방향 제언 등 총 3가지 주제로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하였다. ① 코로나19 극복 활동 유형 구분과 관계없이 마을지기의 자체활동으로 의미가 있는 사례(금천구 2건)와 중간지원그룹이 주관한 대표사례(양천구, 강서구 각1건)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활동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② 주민자치회(성북구 1건)와 로컬랩 운영 그룹(강북구, 노원구 각 1건)에게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 정책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가 3인에게 뉴노멀 진단과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1인만 선정해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 코로나19 극복 활동 사례 관련 4명의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① 코로나 이전 활동에 대한 소개와 어려움 ② 코로나가 마을 활동에 미친 영향 ③ 코로나 극복 활동 내용과 의미 ④ 코로나 이후 마을활동의 변화에 대한 전망 ⑤ 코로나 시기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였으며,

○ 마을공동체 정책 과제 청취를 위하여 선정한 인터뷰 대상자 3인에게는 ① 코로나 극복 활동 내용과 의미와 ② 활동 소개 및 시사점, 마을공동체 정책 과제 ③ 뉴노멀에 대한 진단과 전망 ④ 코로나 시기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1인에게는 뉴노멀 진단과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심층인터뷰는 2020년 9월 15일 ~ 10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일대일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활동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소요시간은 평균 90 ~ 120분, 각 1회씩 진행하였다. 코로나19 극복 활동과 관련된 참고 사진은 인터뷰 진행 이후 mail과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 취합하였다.

○ 심층인터뷰는 시기상 설문조사에 앞서 진행되었지만 설문조사결과와 연관성이 발견될 시 관련 내용도 서술할 예정이다.

(3) 문헌조사

○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사례에 대한 의미와 성과분석을 위하여 최근 발행된 활동 사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변화에 흐름에 맞는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하여 ‘재난 시티즌십’ 관련 시민사회 논의되고 있는 흐름을 쫓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전망과 뉴노멀 시대를 진단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 본 연구 발주기관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정책 기초를 맞추기 위하여 참고자료는 발주기관과 함께 선정하였다. 그 외 참고자료는 보고서 맨 뒤 ‘참고문헌’에 정리되었다.

재난 시티즌십 정책 분석	정책제안	2014희망서울정책박람회 시민시장실 <재난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대화>	허경 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제공
	자료	재난과 공동체미디어의 역할 사례	
	보고서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재난관리에서 재난거버넌스로	2014. 이영희

표 6. 문헌조사 현황

구분		제목	비고
유형	형태		
코로나19 극복활동 분석	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서울협치자문관
	자료집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자원봉사 현장을 재구조화한다는 것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료집	건강한농부협동조합/전 이사장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	보고서	코로나 이후 로컬의 중요성	영국 네스타
	자료집	포스트코로나와 전환의 시대 포럼	사단법인 시민
	책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기획 : 미래자치분권연구소

II

코로나19와 마을

: 마을을 기록하다

1. 재난 회복력과 마을공동체

(1) 코로나19로 확인된 한국의 재난회복력

한국사회가 겪었던 대부분의 재난은 국지적이며 단기적인 성격을 띠었다.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같은 사회적 재난은 짧고 한정된 기간에 재난 피해를 입혔으며 그 복구과정도 비교적 짧았다. 때문에 한국의 재난 대응과 관리 시스템은 단기적 재난 유형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전의 재난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재난이었다. 재난 피해의 범위가 특정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매우 광범위하며, 재난의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재난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늘 다니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일상적으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망이 차단되는 경험, 재난이 언제 종결되지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 이런 경험들을 거치며, 시민들은 장기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회복력(Resilience)’을 강조한다. 재난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이란, “재난을 입은 지역사회가 그 충격과 부정적 영향을 흡수하고, 본래의 지역사회 모습과 기능을 회복하는 시스템의 역량”을 뜻한다(Timmerman, 1981; Cardona, 2003; Adger et al., 2005; 이재연, 2015).

한 사회의 재난회복력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발휘된다. 첫째, 재난 충격을 완화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시설과 인프라에 따른 ‘기본시설 회복력’, 둘째, 재난을 완화하는 계획과 관리, 안전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적 회복력’, 셋째, 재난 복구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을 뜻하는 ‘사회적 회복력’, 넷째, 재난 복구를 위한 물질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회복력’,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재난시기에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즉, ‘공동체의 회복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Cutter et al., 2010).

이러한 재난회복력의 영역 중 한국의 코로나19 극복과정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부분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력’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의 성공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사례는 감염병의 N차 확산을 예방하고 재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공동체의 연대의식과 실천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림 3. 재난회복력의 5대 영역(Cutter et al., 2010) 재구성



하지만, 다른 영역의 재난회복력은 그에 비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 근린생활시설, 주민센터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폐쇄되면서 재난의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기반시설의 회복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오히려 재난 이전보다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또한 경제적 회복력도 떨어졌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소득이 형편없이 내려가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것을 완화하는 대응책은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재난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은 더욱 취약해졌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 이후 교육격차가 더 커졌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집단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었으며, 장애인들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 장기간 놓이게 되었다. 요컨대,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한국의 재난회복력은 재난으로 인한 이차적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고 회복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난과 마을회복력의 중요성

최근 한국의 재난회복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이 강조되고 있다. 정진경(2020)⁹⁾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이라고 정의하고, 그 의미와 유용성을 강조한다. 회복탄력성이 있는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들 간에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개인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서로 공유하는 넓고 튼튼한 그물망이 형성된 사회(최남희, 2016). 이러한 지역사회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Ayoob & Yoshiki, 2016; 정진경 2020 재인용).

지역사회, 특히 근린생활권의 ‘마을공동체’는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개인과 사회의 회복력을 다시 복원하는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공적 시설과 인프라를 통한 회복이 정체되었고,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은 오히려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함께 나누는 단위인 ‘마을’은 공동체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재난으로 취약해진 사회적 회복력과 경제적 회복력을 복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과 자원이 ‘마을’의 관계망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은 한 사회의 재난회복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은 어떻게 발휘 되었을까. 이 장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현장의 기록과 목소리를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력의 영향력과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활동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시기 마을회복력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변화는 무엇인지 마을활동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지기 297명과 마을지원그룹 99명이 참여했다. 현장에 발 딛고 있는 400여명이 경험한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사례와 의미,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의 변화 지점을 이 장에 담았다.

9) 정진경, 2020, “‘코로나 19’로 본 재난의 일상화와 자원봉사현장의 재구조화 방향”,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3차 자원봉사 웨비나(2020.7.6.)

2. 조사내용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지기’와 마을지원그룹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한 마을지기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시점에 활동한 마을지기들을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였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을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마을지원그룹은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마을자치지원센터 등 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집행과 지원체계 내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지기와 마을지원그룹의 설문조사 문항은 각각 다르게 구성하였다. 마을지기를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은 코로나19 발생 전후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과 방식의 변화, 마을활동가의 상태, 재난시기 마을공동체 역할과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들을 포함했다. 마을지원그룹은 코로나시기 자치구별 대응 활동의 규모를 파악하는 질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관식 응답 문항으로 구성했다.

표 7. 설문조사 항목

구분	제목	항목
마을지기	A.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	- 마을공동체 활동 기간 - 마을공동체 활동 지역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분야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연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목적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만족도

마을지기	B. 코로나19 확산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요 의제 - 마을공동체 활동 반경 - 마을공동체 활동 주된 공간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교류 횟수 - 마을공동체 활동 구성원 규모 -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지출 항목 -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C.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 물리적 공간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 유무 - 마을공동체 활동 장소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진행 현황 -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애로점 - 마을공동체 활동의 변화를 체감하는 정도
	D. 코로나19 이후 재난 극복 활동 현황	- 재난 위기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참여 여부 -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유형 -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주체 -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시기, 횟수, 참여자수 -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효과
	E. 코로나19 이후 마을활동가의 상태	-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의 가장 큰 어려움 - 최근 1달 이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 전년 대비 월 평균소득의 변화 - 코로나19 상황이 월 평균소득액 변화에 미친 영향
	F. 코로나19시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평가	- 코로나19 시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평가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이유 -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과 이유
	G.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망과 과제	- 코로나 확산 이후 가장 필요한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 -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을 위해 강화해야할 지원사업 - 향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과제
마을지원 그룹	A.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진행 현황 및 고충 - 자치구 코로나19 극복 활동 유무, 유형, 주체 - 자치구 코로나19 극복 활동 시기, 횟수, 참여자수 - 자치구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애로사항, 성과와 의미
	B. 코로나19 마을공동체 영향	- 마을공동체 활동의 변화를 체감하는 정도
	C.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정책	- 코로나19시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평가 - 코로나19시기 공공시설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코로나 확산 이후 가장 필요한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 -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을 위해 강화해야할 지원사업 - 향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과 내용

(2) 일반적 특성

○ 마을지기 및 마을지원그룹 다수는 여성, 주 연령층은 40대

- 설문조사에 참여한 마을지기와 마을지원그룹 총 396명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비율은 마을지기와 마을지원그룹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을지기 응답자 중 여성이 83.2%, 남성이 16.8% 였으며, 마을지원그룹은 여성이 73.7%, 남성이 26.3%이었다.

- 연령대별로 보면, 마을지기는 40대(46.1%)와 30대(20.5%) 비율이 높았고, 마을지원그룹은 40대(50.5%)와 50대(31.3%)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의 다수가 여성이며, 40대 연령층의 활동이 가장 활발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파악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성별/연령대별 비율과 비슷하다.¹⁰⁾

표 8.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성별/연령대)

구분	마을지기		마을지원그룹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체	297	100.0	99	100.0	
성별	여성	247	83.2	73	73.7
	남성	50	16.8	26	26.3
연령대	10대	3	1.0	0	0.0
	20대	4	1.3	3	3.0
	30대	61	20.5	11	11.1
	40대	137	46.1	50	50.5
	50대	56	18.9	31	31.3
	60대	29	9.8	4	4.0
	70대	6	2.0	0	0.0
	80대 이상	1	0.3	0	0.0

10)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보고서』(2017)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전체 참여자의 성별 비율이 여성 73%, 남성 27%, 연령대 비율이 40대 37%, 30대 22%, 50대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 직업·고용형태 특성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다수

-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마을지기들은 직업·고용형태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의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전업주부, 학생, 무직)의 비율이 21.2%로 높게 나타났다.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율은 5.4%였다. 정규직 비율은 26.6%에 불과했다. 즉,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자영업/비정규직/전업주부가 70%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29.3%), 사무/관리직(13.5%), 자영업(12.5%), 교육관련직(12.5%)순으로 높았다.

-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자영업,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집단은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의 저변이라 할 수 있는 마을지기들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취약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을지원그룹은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마을자치지원관 등

표 9.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마을지기 직업/고용형태)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297	100.0	
고용형태	고용되어 있음(정규직)	79	26.6
	고용되어 있음(비정규직)	16	5.4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134	45.1
	비경제활동(주부, 학생, 무직)	63	21.2
	기타	5	1.7
직업	학생(초/중/고/대/대학원 등)	8	2.7
	시민단체/풀뿌리/비영리활동가	25	8.4
	생산/서비스관련직	7	2.4
	자영업	37	12.5
	문화예술관련직	29	9.8
	사무/관리직	40	13.5
	전문직	20	6.7
	전업주부	87	29.3
	교육관련직	37	12.5
	기타	7	2.4

주로 공적기관에 소속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업과 고용형태를 확인하는 문항을 생략하였다.

○ 응답자 지역별 분포

- 본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 전달체계가 방역 행정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표집 방법을 자치구별 할당 방식이 아닌 편의 표집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을지기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한 마을지기 전체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에서 편차를 보인다. 마을지기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치구는 금천구(11.8%), 강남구(11.4%), 중랑구(7.4%) 순으로 높았다.

- 마을지원 그룹은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9.1%)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자치구들은 대체로 3~6% 사이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초구	2	0.7	4	4
성동구	10	3.4	2	2
성북구	6	2.0	3	3
송파구	2	0.7	3	3
양천구	9	3.0	5	5.1
영등포구	14	4.7	3	3
용산구	1	0.3	7	7.1
은평구	18	6.1	4	4
종로구	3	1.0	6	6.1
중구	2	0.7	0	0
중랑구	22	7.4	5	5.1

표 10. 응답자 지역별 분포(마을지기/지원그룹)

구분	마을지기		마을지원그룹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체	297	100.0	99	100.0
강남구	34	11.4	6	6.1
강동구	3	1.0	3	3
강북구	9	3.0	5	5.1
강서구	26	8.8	4	4
관악구	6	2.0	1	1
광진구	22	7.4	3	3
구로구	29	9.8	5	5.1
금천구	35	11.8	6	6.1
노원구	2	0.7	9	9.1
도봉구	21	7.0	3	3
동대문구	3	1.0	3	3
동작구	3	1.0	3	3
마포구	8	2.7	3	3
서대문구	7	2.4	1	1

3. 마을의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 현황과 의미

(1) 활동현황

1) 자생적 주민모임의 힘

○ 응답자 63.9%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코로나19 극복 활동 진행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문제 해결에 경험이 있는 자생적 주민모임들은 코로나 19 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위기 속 공공기관 전면 폐쇄에 따른 공적 서비스 부재와 동시에 이동제한에 따른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

타났다.

- 마을지기(19~20년 공모사업 대표제안자) 대상 설문 응답자(297명) 중 111명인 37.4%가 코로나19 확산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 63.9%는 스스로 기획한 활동이라고 응답(복수응답가능, 케이스 중복에 따라 전체 응답 135.2%)했다.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20.4%)나 동주민자치회(10.2%), 지역 시민사회 단체(13.9%) 등 민의 자율성이 높은 지원기관이나 지역 민간그룹이 주관한 활동에 참여한 비율도 44.5%로 높았다. 반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주관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19.4%에 그쳤다.

- 금천구 독산2동에서 마을공유공간을 운영중인 ‘독산마루’ 대표 서흥교 씨는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 “동아리 활동 주민 중 독산초학부모모임에서 제가 운영중인 마을 공유공간 독산마루를 작업공간으로 활용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마다 면마스크를 제작 하는 모임인 ‘화목한미싱모임’이 만들어지고, 이 모임에 학부모 15명이 참여해 2개 초등학교 총 980명 전원에게 배포가능한 면마스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 마을지기는 방역/예방활동 57.7%, 마을지원그룹은 심리방역 23개구로 가장 높아

- 코로나19 극복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마을지기의 활동유형별 분포(복수응답가

그림 4.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코로나19 극복활동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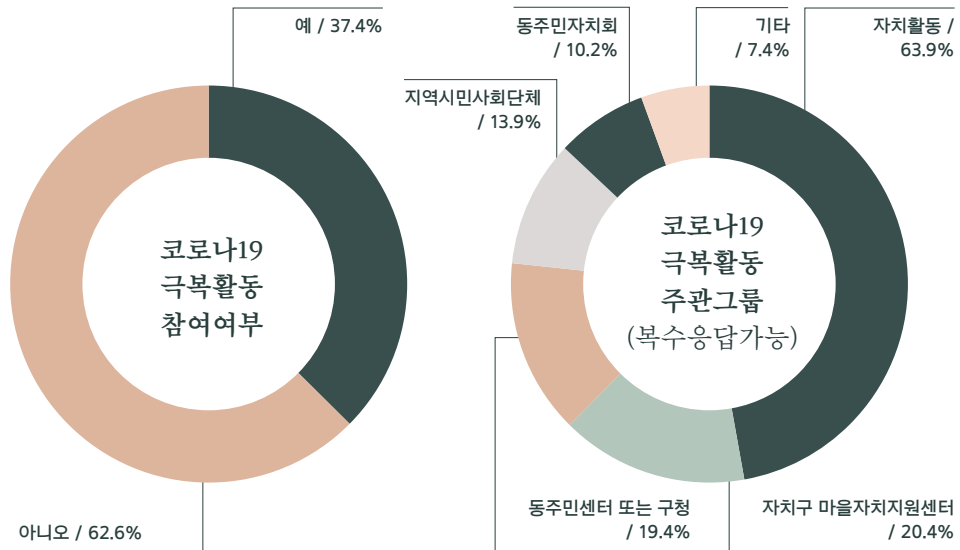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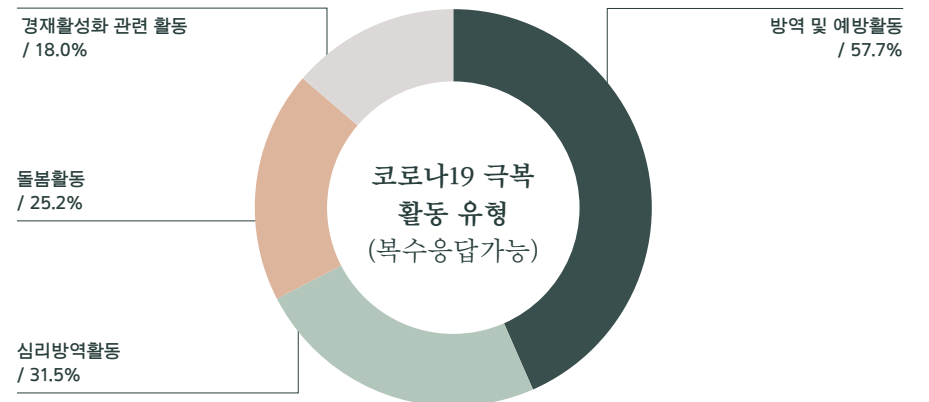


그림 5. 마을지기 코로나19 극복 활동유형



능)는 방역(소독), 마스크 제작 등 '방역 및 예방활동'이 57.7%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응원캠페인, 안부묻기 등 심리방역 활동이 31.5%로 두번째로 높았다. 어르신·아동돌봄을 비롯하여 생필품, 반찬나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활동'도 25.2%나 되었다. 지역상품권 사용, 지역상품 구매 등 '경제 활성화 관련 활동'은 18.0%로 가장 낮았지만 대체로 균등한 분포를 이루었다.

-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또는 동주민자치지원관 등 마을지원그룹 응답에서는 안부묻기 등 캠페인성 심리 방역 활동이 각 23개 자치구에서 확인돼 가장 높은 활동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역센터에서 공동주관 프로그램 요청에 따라 진행되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많은 자치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이 내용은 전남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이웃과 꽃나눔 캠페인이었다. 광역센터가 주관한 활동은 또 있었다. 광역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22개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구성원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하였으며 총 모금액수는 6,924,000원이었다. 그 외, 설문을 통해 확인된 모금 진행구는 강서, 양천, 중랑구로 광역센터 주관 모금액까지 포함한 총 모금액은 18,421,500원이었다.

-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진행된 방역(소독)활동은 15개구, 마스크 제작 활동은 19개구에서 확인되었다. 방역(소독)활동의 경우, 코로나19 범유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와 비교적 협력이 쉽고 동원수와 참여율 등이 예측가능한 동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정기성을 띄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품과 각종 장비는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임원진들이 봉사자 관리 등으로 피로도가 높다고 추가 응답한 자치구도 1곳 있었다.

표 11. 마을지원그룹 응답결과표

마을지원그룹 응답현황						
설문 응답구	코로나 극복 활동구	방역 및 예방활동구	심리방역 활동구	경제활성화 관련 활동		기타 (교육/대책 회의)
				물품제작기부활동구	모금활동구	
24개구	24개구	15개구	23개구	12개구	37개구	4개구

- 심층인터뷰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아닌 자생적 주민그룹이 방역(소독)활동을 어떻

게 진행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금천 독산마루 서흥교 대표는 “방역기계 2개를 구매 모입활동하는 주민들과 함께 독산2동 상가 위주로 300여군데 방역활동을 자원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방역공간 외 취약하다 판단되는 상가시설 위주로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모임은 제도 밖 영역으로 방역에 취약하나 주민들 이용이 확인되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기적으로 소독 자원활동을 진행하였다.

사진 1. 금천구 상가지역 소독 자원활동(서흥교 제공)



2) 십시일반의 기적

○ 자발적 주민 활동, 서울시 거주 아동/장애인 전원 1매씩 배포가능한 마스크 제작

- 마을지기와 마을지원그룹 설문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 극복 활동 총 참여인원수는 10월말 기준 13,979+a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노원구에서 지원한 '마스크의병대' 참여 주민을 제외하였으며 누적인원이 아닌 1회 이상 활동한 주민수로 집계했다. 방역활

동이 있으나 파악이 어려운 구의 경우 주민자치회 수로 일괄 적용했으며 위 집계에 활동은 있었으나 파악이 어려운 서초구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에 참여한 대략적 주민규모는 23개구 13,979+a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 자치구별 마을지원기관이 주관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마스크 제작 개수는 120,663+a개로 집계되었다. 마스크 제작 활동은 확인되나 집계되지 않은 서대문구, 송파구를 제외하고 17개 구에서 집계된 내역이다. 여기에 노원구 ‘마스크의병대’에서 제작한 면마스크 개수까지 포함하면 1,260,663개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아동(629,716명, 2019년 하반기 기준)과 장애인(393,726명, 2019년 하반기 기준)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장애인 전원에게 1매씩 배포가능한 마스크가 약 8개월 만에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제작된 셈이다.

표 12.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결과총괄표

마을지원그룹			마을지기			코로나19 극복 활동결과(마을지원그룹 설문 결과 기초)						
응답구	코로나 극복 활동구	방역 봉사구	응답률 (%)	코로나 시기 활동유지 (%)	코로나 극복 활동률 (%)	참여 인원 (명)	마스크 등 제작 (개)	캠페인 (종)	물품 기부 (개)	모금액 (원)	교육/대책회의 (건)	
24개구	24개구	15개구	25	68.69	37.37	13,979+a	120,663+a	52	8,988	18,421,500	29	

- 마을지원그룹 응답 중 ‘노원 마스크의병대’ 사례를 제외하고 마스크 제작 개수가 가장 높았던 성북구의 경우, 동주민자치회에서 보문동 전체 거주자(17,000명)를 대상으로 면마스크를 제작하여 배포했고 마포구의 경우, 2020년 2월 2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5-60개의 면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였던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에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김지연 씨는 “봉제공장이 많은 보문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제공장과 연계하여 면마스크 제작을 진행했고 제작한 마스크는 직접 보문동 전 세대를 돌며 우편함에 마스크를 꽂아 배포했다. 초기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면마스크를 나눠드린 것은 시의적절했고 지역 봉제공장과 협력하여 보문동 전 세대에 배포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컸다”며 “7,8월 되면서 마스크 공급난이 해소되자 그 후에는 반찬나눔으로 전환하여 활동을 지속하였다”고 답했다.

사진 2. (좌) ‘힘내라 양천! 마스크 전달식’ - 양천구 마을지원센터 제공
(우) 독산마루 마스크 제작 현장-서호교 제공



○ 마을 자원 연계 ‘꾸러미’ 등 물품제작 8,988개, 용산구 장애인 전체 혜택 가능

- 마을지원그룹의 응답 내용을 집계한 결과, ‘반찬꾸러미’, ‘코로나키트(손세정제 등)’ 등 기부물품 제작갯수는 총 8,988+a개로 강동, 강서, 강북, 금천,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은평 등 12개 자치구에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활동은 있었으나 수치 파악이 어려웠던 마포, 은평구를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이는 용산구 거주 장애인 8,043명 보다 많은 수다.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2만개가 넘는 꾸러미가 제작될 수 있고 이는 광진구 거주 아동(20,665명)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규모다.

표 13.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결과 자치구별 총괄표

자치구	응답 여부	극복 활동	방역 활동	주민자치회 시범동별 인원수	참여인원 (명)	마스크 제작 (개)	캠페인 (종)	물품 기부 (개)	모금액	교육/대책회의(건)
강남구	○	○	×	조례미통과	파악어려움	-	1	-	-	-
강동구	○	○	○	215	215	778	4	640	-	-
강서구	○	○	×	237	237	500	5	280	6,200,000	-

강북구	○	○	○	249	604	2,055	3	220	-	7
관악구	○	○	○	222	272	1,000	1	-	-	-
광진구	○	○	○	234	234	-	5	-	-	-
구로구	○	○	○	178	658	-	5	-	-	-
금천구	○	○	○	366	468	2,200	1	448	-	4
노원구	○	○	○	232	1310	500	4	-	-	-
도봉구	○	○	○	406	506	-	1	-	-	-
동대문구	○	○	○	212	232	500	1	2020	-	-
동작구	○	○	○	214	364	600	1	1700	-	-
마포구	○	○	×	217	217	14,080	3	파악×	-	-
서대문구	○	○	○	248	298	파악×	2	-	-	7
서초구	○	○	×	0	파악어려움	700	1	320	-	-
성동구	○	○	○	352	392	2,100	3	2400	-	-
성북구	○	○	○	501	801	31,000	2	450	-	-
송파구	○	○	○	274	324	파악×	-	-	-	-
양천구	○	○	×	215	1,829	7,000	3	510	1,000,000	-
영등포구	○	○	○	196	196	25,800	-	-	-	-
용산구	○	○	×	237	1,230	350	1	-	-	-
은평구	○	○	×	217	217	30,000	5	파악×	-	-
종로구	○	○	×	106	460	1,500	1	-	-	11
중구	×	×	×	0	0	-	-	-	-	-
종로구	○	○	×	215	345	-	2	-	4,297,500	-
총계			15	5,432	11,409+ α ¹¹⁾	120,663+ α ¹²⁾	52	8,988	11,497,500 ¹³⁾	29

- ‘꾸러미’ 등 물품제작 사례가 발굴된 12개구 중 강서, 금천, 성북, 양천 등은 별도 심층인터뷰도 진행했다. 취약계층과 지역의 소상공인 등 2개 그룹 이상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그룹과 자원을 연계해 ‘꾸러미’를 제작한 사례였다. 금천구 건

11) 마을지원그룹 응답만으로 집계한 인원수이며 마을지기 응답으로 확인된 참여인원수(2570명)를 제외한 집계임. 마을지기 응답까지 합하면 총 참여인원 규모는 13,979+ α 명임
 12) 노원구 마스크 의병대 제작갯수 1,140,000개를 제외한 숫자이며, 이를 포함하면 1,260,663+ α 개임.
 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모금액 6,924,000원까지 합한 총 모금액수는 18,421,500원이다.

강한농부협동조합 전 이사장 김선정 씨는 “아이들은 긴급돌봄지원이 있지만 복지관, 경로식당 등 운영이 중단되어 영양공급에 취약한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동네 상인들과 가게에서 재료비 등을 십시일반하여 반찬을 만들었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건 금천 복지전달체계인 통통나래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천구의 경우,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사례였다.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진갑 씨는 “행복밥상꾸러미 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했다. 주민들에게 꾸러미를 구성할 수 있게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동주민센터의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주민에게 비대면으로 대상자에게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대상자 선정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연계까지 동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소통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일부를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내용을 변경해 진행한 사례다.

사진 3. (위) 홀몸어르신 반찬나눔 현장-기사서치
 (아래좌) 양천구 행복밥상꾸러미 현장-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제공
 (아래우) 강서구 이대목동병원 꾸러미 전달 현장-윤성미제공



강서구 시민협력플랫폼 총괄국장인 윤성미 씨는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빵, 지역 단체들이 직접 만든 방진마스크,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상생상회에서 산 다양한 물품들로 구성된 ‘꾸러미’ 280개를 제작했다. 시민협력플랫폼 운영단체 활동가 17명이 모여 인간 컨베이어벨트처럼 포장을 했고 강서구 보건소, 방역,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3) 공백과 격차를 메우는 마을생태계 가능성

○ 더 어려운 이웃 지원, 활동 주민 43.2%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 받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2~6월까지 자치구별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확산 진행시에도 개인 보호 차원의 활동이 아닌 마스크, 생필품, 반찬 등을 제작·구입해 지역의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활동이 주로 진행되었다”고 분석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진갑 씨는 심층인터뷰에서 “3월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시점,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라는 캠페인을 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구성원, 외국인노동자 등 약국에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면마스크를 만드는 활동을 했고 다양한 장소에서 어린이,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7,000여개의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표 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코로나19 관련 마을·자치공동체 활동내용 정리(0707)>

구분	자치구	활동수	활동내용
총계	19개 (중복제외)	61건	· 총 15건의 방역활동 · 총17,778+ α 매 마스크제작 및 배포(취약계층대상) · 취약계층 및 의료진 나눔활동 16건 · 코로나극복을 위한 캠페인 진행 10건
자체방역활동	11	15	· 주민자치회 방역활동 11건 · 센터 및 주민모임 방역활동 4건
물품기부1 (마스크제작 및 나눔)	13	20	· 총17,778+ α 매 제작 및 배포 - 13건 활동 : 17,778매 제작 및 배포 - 7건 활동 : α (수량파악불가)
물품기부2 (취약계층)	10	16	· 취약계층 생필품, 소독제, 반찬나눔 활동 11건 · 재난본부, 의료진에게 생필품 및 간식전달 3건 · 기타 2건(택배기사에게 간식전달, 반려동물 간식전달 1건)

모금활동	1	1	· 모금 활동 추진 1건 / 4,297,000원
지역캠페인 추진	8	10	· 화훼농가 등 타지역 돕기 캠페인 4건 · 코로나극복 캠페인 2건 · 물품나눔 캠페인 2건 · 착한임대 캠페인 1건 · 골목상권살리기 캠페인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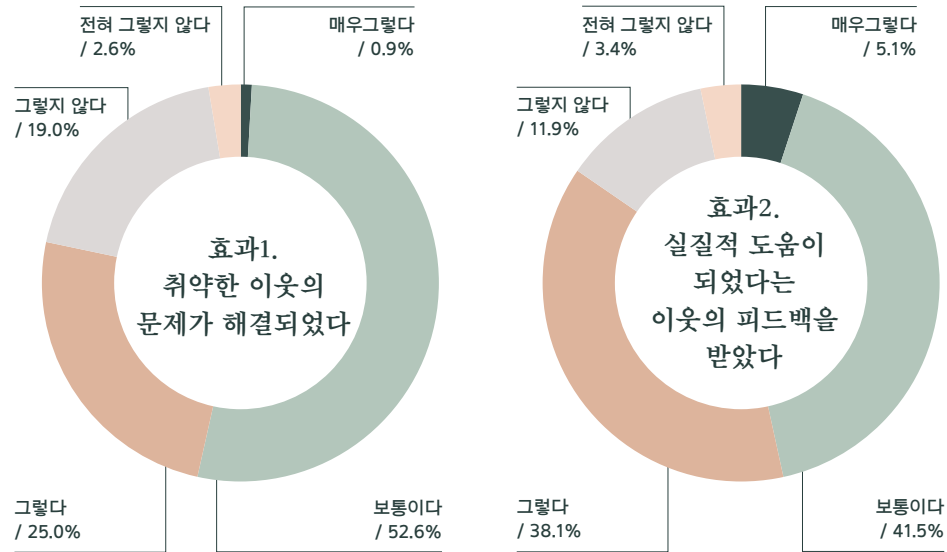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될 때는 4개구에서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활동도 포착되었다. 광역센터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관으로 20여개 자치구 마을자치센터가 6,294,000원을 모아 전달하였고 그 외 마스크, 속옷, 양말 등을 대구·경북지역으로 발송하는 활동이 있었다.

표 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코로나19 관련 마을·자치공동체 활동내용 정리(0707)-초기대응>

구분	자치구	활동수	활동내용
총계	20개 (중복제외)	6건	· 모금액 : 6,924,000원 · 마스크100+ α 매 제작 및 배송 · 속옷과 양말세트 350개 배송
모금활동	1+20 (서울시+자치구)	1	· 서울 및 자치구마을자치센터가 모금활동 진행 : 6,924,000원
물품기부1 (마스크제작 및 나눔)	4	4	· 마스크 총100+ α 매 제작 및 발송 (α :3개 활동 수량파악불가)
지역캠페인 추진	1	1	· 속옷과 양말세트 의료진 배송 350개

- 마을지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활동 효과를 물었다. 코로나19 극복 활동에 참여한 111명 중 25.0%는 “취약한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활동의 임팩트를 단정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다’ 이라고 응답한 응답도 52.6%로 높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라는 부정적 응답(21.6%) 보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25.9%)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다.

그림 6.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코로나19 극복활동 효과 응답



- 마을지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활동의 임팩트의 근거로 이웃에 대한 피드백 여부를 묻은 질문,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이웃의 피드백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는 무려 43.2%나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마을지원그룹, 코로나블루를 이기는 심리 방역 활동 다수 진행

- 마을지원그룹 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 활동 중 이웃 지원을 위한 캠페인 등 심리 방역 활동을 진행했다는 구는 총 23개구로 활동 유형 중 심리 방역 활동이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되었다.

표 16. 마을지원그룹 심리방역 활동 상세 내용

	활동내용
강동구	강동구 지역주민의 ‘코로나블루’ 예방 및 활력 증진 프로그램, “마음 똑똑, 마을TalkTal(톡톡)”
강북구	코로나19 지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안부묻기 “마을, 이웃의 안부를 묻다 - 똑똑, 잘 지내요?”

강서구	코로나키트 배분, 마스크 목걸이 제작 보조
관악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악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나와 너 우리 온라인 합창”
광진구	코로나19 멀어진 이웃간 거리를 봄꽃으로 연결하는 “나와 너 우리 봄꽃 나눔”
구로구	코로나 시대 건강한 모임규칙과 비대면체온계 대여합니다
금천구	나+나눔 캠페인 “마을방역 뽐 챌린지”
노원구	5행시 짓기, 꽃나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음식, 식물), 카톡으로 안부묻기
도봉구	마을, 이웃의 안부를 묻다 “똑똑 잘 지내요?”
마포구	코로나19 예방 물품비치, 코로나 극복 마을공동체 밀키트 나눔행사
서대문구	“나와 너 우리 봄꽃 나눔으로 봄을 나뉘요~”
서초구	유튜브 마을축제영상
성동구	성동구 코로나극복 공동체활동 작품 공모 “코로나극복 응원과 감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뉘요”
성북구	“나와 너 우리 봄꽃 나눔으로 봄을 나뉘요~”
양천구	코로나 극복 공동체백신 나눔 수기공모, 힘내라! 마을바캉스, 위캔두!, 마을살롱 등
용산구	코로나19 극복 감동사례 나눔 프로젝트
은평구	발코니 음악회, 동반인프로젝트 등
종로구	코로나19 극복 공동체 수기 공모
중랑구	중랑, 응원의 힘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모금, 나와 너 우리 봄꽃 나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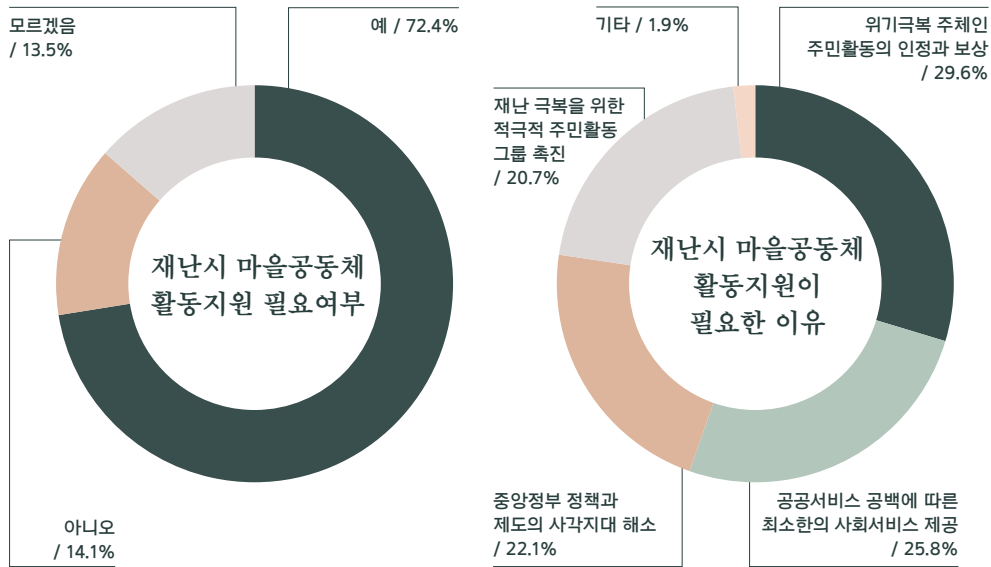
(2) 마을의 재난 극복 활동의 의미

○ ‘K-방역의’ 근간이 된 높은 시민의식 확인돼, 위기 극복 주체로써의 인식 높아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마을지기의 72.4%가 “그렇다(예)”라고 답했다.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주민 활동의 인정과 보상(29.6%)”, “공공서비스 공백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제공(25.8%)”, “중앙 정부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22.1%)”,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 주민활동그룹 촉진(2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4가지 항목 모두 20% 이상 응답하며 고른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위기 극복의 주체로써의 마을지기와 문제 해결 방법으로써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마을지기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14.1%)들이 꼽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활동을 축소하고 안전에 집중해야 하므로” 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더 필요한 곳에 먼저 재정을 지원해야 하므로”라는 응답은 3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방역 지침에 따르고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들이 대체로 개인의 이익(이동의 자유와 권리)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는 그룹이라는 특징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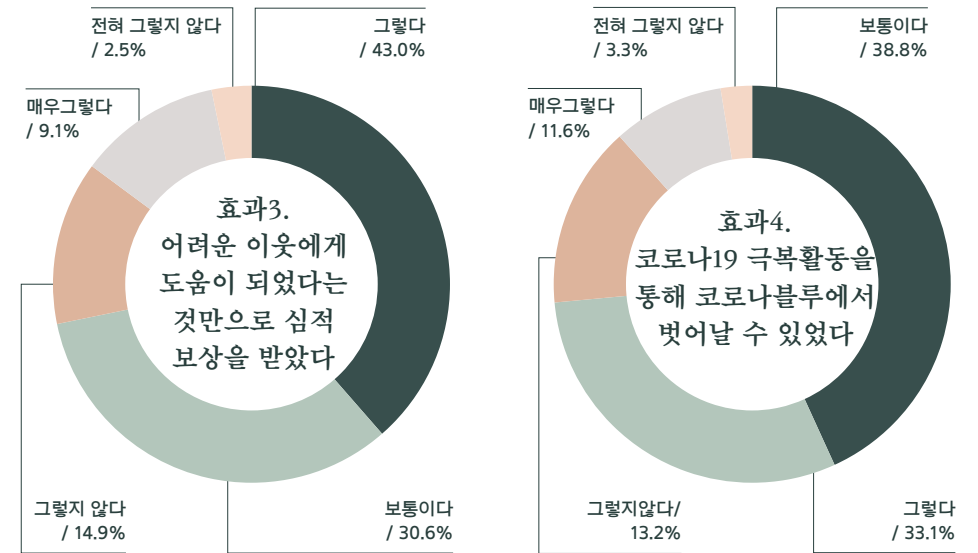
그림 7.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재난시 마을공동체 지원 필요여부



○ 재난 극복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도 심리적 방역 효과 발생

- 코로나19 극복 활동에 참여한 마을지기들은 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다. 코로나19 극복 활동에 참여한 응답자 중 52.1%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데 반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17.4%에 그쳤다. “코로나19 극복활동을 통해 코로나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44.7%, 부정적 응답이 16.5%로 이 역시 “그렇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림 8. 마을지기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변화와 방향 설문조사> 중 코로나19 활동 효과



- 독산마루 서흥교 씨는 “면마스크 제작 활동을 참여한 후 후기를 공유하는 주민들 대다수는 ‘집에만 가만히 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생겨 좋았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키트와 면을 재단해서 바늘, 실 등과 함께 나눠드렸어요. 주민들이 집에만 갇혀계시고 되게 답답해 하셨잖아요. ...중략... 막상 해보니깐 너무 많은 분들이 되게 즐겁게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전달식에서 사연 나눔을 했었어요. ‘30년 동안 한번도 써 본적이 없던 재봉을 이번에 칠해서 써보고 했다’ 그런 사연들...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해주신 분도 되게 많이 계시구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걸 수 있었어요.” - (서흥교)

○ 관계 축소에 따른 고립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재난시 마을공간 수요 확인

-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동규 씨는 심층인터뷰에서 “마을에 3개의 공동 이용시설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모두 폐쇄를 하여 이용할 수 없었다. 삼양동처럼 25년 이 넘은 노후주택이 85%이상인 곳에서는 열악한 주거공간에서만 지내는 것 자체로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것이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을의 공간들이 병원의 역할, 상호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산마루 서흥교 씨도 “독산마루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폐쇄되었을 때도 일정기간 운영하였다”며 “독산마루를 이용하는 모임 중 이주여성자조모임은 단계별로 만남의 횟수는 줄여서 만났지만 꾸준히 활동을 지속했고 이런 공유공간이 꼭 필요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서구 시민협력플랫폼 총괄국장 윤성미 씨는 “작은 단위가 모이는 마을 안에 안전한 공동체 공간들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폐쇄되었을 때도, 일정기간 열렸었어요. 심화되니까 그때부터 닫았어요. 2.5단계에서는 완전 폐쇄였어요. 여기도 공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오기를 꺼리긴 해요. 공식적으로는 막 부르진 않았어요. 영향이 많았지요. …(중략)… 저희 공간에 이주여성자조모임이라는 모임이 와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혼해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그들을 지원하는 위탁기관에서 엄마들이 두달을 합숙생활을 해서 한국문화도 익히고 그런 뒤에, 거기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엄마들하고 애들이 미술활동을 계속하고 미술심리치료 받고 했는데 지금도 연결되어서 해요. 애들 미술상담, 한국국적취득 공부, 문화, 예절, 애국가 부르는 것. 그런 것이 여기서 벌어져요. 코로나 중간에도 끊겼다 했다 끊겼다 했다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는 거죠” (서흥교)

- 마을지기들도 재난시 필요한 지원내용에 대해 가장 많은 수가 “공간 및 시설 지원”(28.3%)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우울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21.1%)이라고 응답했고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도 13.6% 였다.

표 17.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필요지원

항목	응답수	케이스 중 %
공간 및 시설 지원	110	54.2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53	26.1
네트워크 연계	38	18.7
인건비 지원	37	18.2
임대료 지원	27	13.3
각종 디지털 장비 지원	25	12.3
생활비 대출 지원	17	8.4
우울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2	40.4
전체	389	191.6

그림 9.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 필요지원에 대한 질문(마을지기)와 공간운영여부(마을지원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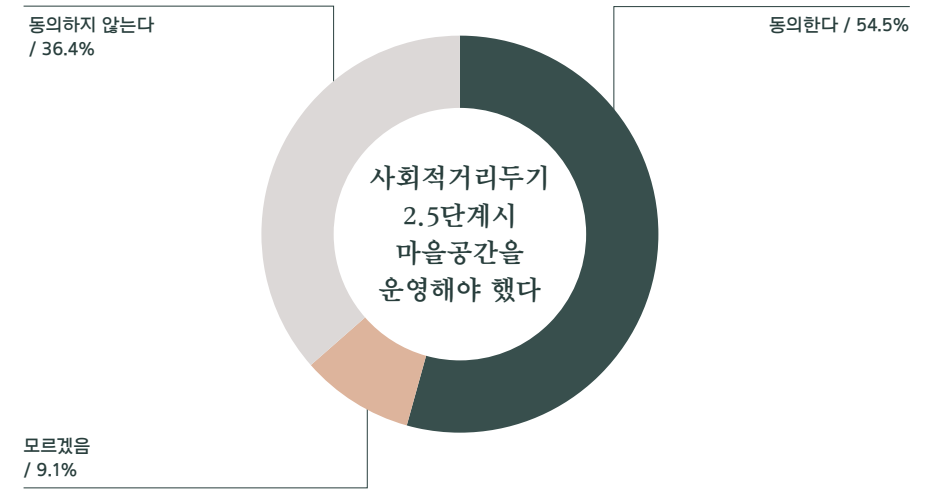


표 18.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마을공간 운영 여부별 이유

동의(54명) 이유(일부 발췌)	부동의(36명) 이유(일부 발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는 더 위험한 카페에 모여야 했다. 주민이 운영하는 안전한 공간이 더욱 절실했다. ·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운영을 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폐쇄가 답은 아니다 · 방역수칙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장비 구입 등 공공영역 운영 다양한 활성화 고민이 부족했다. · 공공시설이 방역이 잘되어 있어 사설보다 안전하다. 소수의 공동체 활동은 코로나 시기에 더 필요하다고 봄. · 단절과 복지공백 증가로 인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소통과 논의창구로서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이 필요했다. · 마을공간을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집합 모임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 행정의 공간 폐쇄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최소한의 연계와 돌봄은 지속되어야 한다. · 마을공간은 주민들이 더 주인식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 마을공동체 공간이용으로 주민들의 쓸림현상도 조심스러워서 · 활동보다 안전이 중요 · 확진자 또는 전염시 책임 · 주로 나이드신 노약자 분들이 많아서 · 주민이 계속 방문을 꺼림 · 사회적거리두기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코로나 확산금지를 위해서 ·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 2.5단계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방역수칙임 · 생명을 담보로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은 아니다 · 코로나19의 정부정책지침에 따르는 게 맞다 · 코로나 상황하에 폐쇄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 책임의 문제 때문에 운영결정이 쉽지 않다. · 책임감을 갖고 있는 주민이 부족한 듯 하다.

- 마을지원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동안 많은 공공시설의 폐쇄에 따른 복지공백 대응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공간을 운영 했어야 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물었다. 동의와 부동의로 응답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99명 중 54명이 동의를, 36명이 부동의를, 9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5단계에서도 마을공간은 운영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응답자 중 36명은 재난 상황일수록 고립을 막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응답했고, 응답자 중 10명은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간을 운영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부동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과의 형평성에 맞춰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에 따라 위기 극복 활동 영향

- 마을지원그룹 대상 “현재 지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상반기 대부분 진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혹은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될 때까지 우선은 사업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 등과 같이 사업을 유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구는 관악, 송파, 성북, 노원 등 4개구로 코로나19 확진자수(20.10.29 집계 기준) 발생수 1, 2, 3, 4위에 해당하는 자치구였다. 지역 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김지연 씨는 “성북구는 특별구역 같았다. 정부에서 2단계라고 하면 우리는 2.5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여 활동했다. (다른 구에 비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고 지역 분위기를 설명했다. ‘확진자수’로 경보단계가 결정되다보니 타 자치구와 비교해 확진자수가 높은 자치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 진행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9. 마을지원그룹의 코로나19 발생 후 지원사업 상황 응답

활동내용		
강남구	322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강동구	202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강서구	300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강북구	156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관악구	466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될 때까지 우선은 사업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

광진구	137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을 진행하였다
구로구	201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금천구	98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노원구	331	상반기 대부분 진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도봉구	225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을 진행하였다
동대문구	175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동작구	260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마포구	183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을 진행하였다
서대문구	137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서초구	224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성동구	134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을 진행하였다
성북구	347	상반기 대부분 진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	381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될 때까지 우선은 사업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
양천구	189	원래 계획대로 진행중임
영등포구	208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용산구	143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은평구	264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종로구	95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을 진행하였다
중구	65	-
중랑구	209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코로나19 극복 활동이 진행되었던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등 3개구를 별도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극복활동은 ① 방역(소독) 활동여부 ② 마스크 제작(갯수) ③ 캠페인진행(종수) ④ 물품제작(갯수) ⑤ 모금(액수) ⑥ 교육 및 대책회의(건수) 등 6가지 중 5가지 이상의 활동이 발견된 자치구로 특정했다. 수치가 가능한 유형으로 세분화되 집계규모로 특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라고 하는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대하여 자치구 마다 인식과 편차가 컸고 집계규모가 큰 것은 특정그룹이 주관하는 활동인 것이 파악돼 다양한 주민과 시민사회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경로를 마련하였다 판단되는 활동유형수로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특정하였다.

표 20. 자치구별 마을지원그룹/마을지기 응답 세부 현황

자치구	마을지원그룹 응답 현황									마을지기 설문 현황			
	응답 여부	극복 활동	방역 활동	참여 인원수 (명)		캠페인 (종)	물품 제작 (개)	모금액	교육/대책 회의	마을 모임 수	설문 응답 수	코로나 마을 활동 여부	코로나 극복 활동 여부
강남구	○	○	×	0	-	1	-	-	-	115	34	21	7
강동구	○	○	○	215	778	4	640	-	-	10	3	1	0
강서구	○	○	×	237	500	5	280	6,200,000	-	64	26	20	10
강북구	○	○	×	604	2055	3	220	-	7	19	9	6	4
관악구	○	○	○	272	1000	2	-	-	-	12	6	4	4
광진구	○	○	○	234	-	1	-	-	-	75	22	13	4
구로구	○	○	○	658	-	5	-	-	-	124	29	19	10
금천구	○	○	○	468	2200	1	448	-	4	75	35	26	21
노원구	○	○	○	1310	500	4	-	-	-	4	2	1	1
도봉구	○	○	○	506	-	1	-	-	-	62	21	14	3
동대문구	○	○	○	232	500	1	2020	-	-	11	3	1	1
동작구	○	○	○	364	600	1	1700	-	-	19	3	0	1
마포구	○	○	×	217	14080	3	파악×	-	-	40	8	6	4
서대문구	○	○	○	298	파악×	2	-	-	7	15	7	6	3
서초구	○	○	×	파악×	700	1	320	-	-	8	2	2	2
성동구	○	○	○	392	2100	3	2400	-	-	43	10	6	5
성북구	○	○	○	801	31000	2	450	-	-	15	16	3	1
송파구	○	○	○	324	파악×	-	-	-	-	9	2	1	1
양천구	○	○	×	1,829	7000	3	510	1,000,000	-	37	9	6	5
영등포구	○	○	○	196	25800	-	-	-	-	72	14	8	5
용산구	○	○	×	1230	350	1	-	-	-	5	1	0	0
은평구	○	○	×	217	30000	5	파악×	-	-	51	18	15	8
종로구	○	○	×	406	1500	1	-	-	11	15	3	2	0
중구	×	×	×	0	-	-	-	-	-	4	2	2	0
중랑구	○	○	×	345	-	2	-	4,297,500	-	43	22	21	11

- 강서구의 경우, 확진자수가 여섯 번째로 높은 자치구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 유형 전체에서 활동이 확인되었다. 2019~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마을모임 수도 여섯 번째로 높은 자치구다. 강서구 시민협력플랫폼 총괄국장인 윤성미 씨는 강서구 지역사회 특징으로 “시민협력플랫폼 운영단체는 총 13개 단체가 있고 매달 회의

에 참여하기 어려운 단체 2곳을 제외하고 11개 단체가 주요하게 협력하고 있다. 운영단체의 규모(회원수 등)가 타 자치구의 그룹에 비해 큰 규모의 운영단체가 많이 속해 있다”며 “강서 같은 경우 가장 늦게 시민협력플랫폼을 시작한 자치구지만 올해 코로나19를 맞이하며 지역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찾아봐야겠다는 화두로 강서구 지역 지역시민사회들간 시민사회네트워크를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미씨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착한마스크캠페인에 시민협력플랫폼 참여단체인 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를 비롯해 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지역의 캠페이너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결합되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의 중량감 있는 시민사회그룹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 금천구도 코로나19 극복 활동 관련 6가지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사례가 발견된 자치구였다. 2019~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마을모임수는 세번째로 높았다. 금천 독산2동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이어 활성화지역으로 지난 9월 선정되는 등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하며 동단위 주거지 재생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구축되었다.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 변화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금천구는 동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작 첫 해 시범동수를 전동인 10개동 모두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유일한 자치구이기도 하다. 독산마루 대표 서흥교 씨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면 자치구로 100억의 예산이 들어온다. 주민들의 활동을 보고 100억을 받는 사례가 별로 없다. 진짜 주민들의 활동이 이뤄낸 성과다. 활동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양천구는 지원조직에서 촉진자 역할을 톡톡히 한 사례다. 양천구도 6가지 활용 유형 중 5가지 유형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양천구는 지원조직 중 유일하게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진갑 씨는 “처음 터졌을 때부터 마을지기들과 논의를 했다. 처음에 행정(구청 담당)도 코로나19 시기 활동에 약간 부정적이었지만 이럴 때 마을공동체가 나서지 않으면 뭘 할 것이냐, 몇 번 보여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기존의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시기에 맞게 변경하여 ‘행복밥상꾸러미’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행복밥상꾸러미’ 공모사업은 지역 일자리를 연결해 꾸러미를 배송하고 공모사업에 지원한 주민모임에게 재료비 등을 지원해 꾸러미를 제작하게 한 사례다. 꾸러미는 지역의 중소상공인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 박진갑 씨는 “코로나 시대 마을의 돌봄과 일자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조직으로서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정책적 설계가 좀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행복밥상꾸러미’ 외에도 마스크 만들기와 어린이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기별 위로가 필요한 특정계층을 응원하는 ‘괜찮아 잘될거야’, 큰공원 위주의 제자리마을운동회인 ‘위캔두’, 동네단위 마을운동회 ‘힘내라 마을바캉스’ 등 계층별 규모별 다양한 종류의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4. 코로나19와 마을의 변화

(1) 코로나19 발생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

○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 : 문화공동체 51.5%, 돌봄·교육공동체 30%

- 코로나19로 인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서 마을지기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 경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마을지기들의 활동 영역은 취미나 여가생활 또는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동체’(51.5%) 활동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동육아, 돌봄 교실 등 ‘돌봄·교육공동체’(30%)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먹거리, 주민자치 등 ‘생활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8%였으며, ‘경제공동체’(3.0%)와 ‘주거공동체’(3.7%) 활동으로 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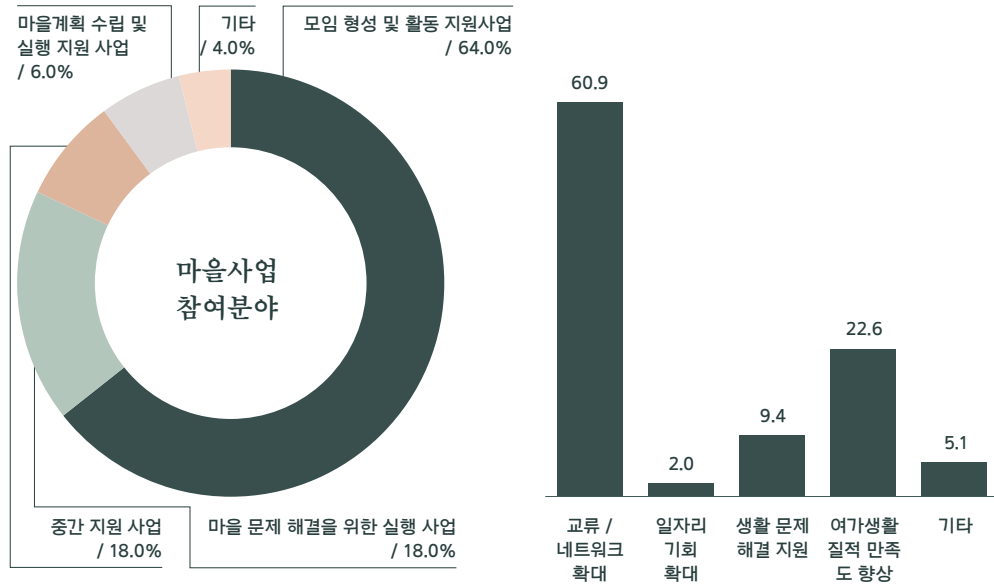
표 21. 코로나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

항목	빈도	백분율(%)
문화공동체 (취미 및 여가생활 영위와 친목/교류를 위한 활동)	153	51.5
생활공동체 (먹거리, 주민자치 등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35	11.8
경제공동체 (마을기업, 마을일자리 등 경제적 활동)	9	3.0
주거공동체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등 지역 환경 개선 활동)	11	3.7
돌봄·교육공동체 (공동육아, 돌봄교실 등 돌봄과 교육을 위한 활동)	89	30.0
전체	297	100.0

○ 모임형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이 64%, 참여 연차는 1~2년차가 67%

- 마을지기들이 최근 5년 이내 참여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분야는 ‘모임 형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이 가장 큰 비중(6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사업’(18%), ‘마을 공간 지원 사업’(8%), ‘마을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사업’(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목적은 ‘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가 60.9%로 가장 높았고, ‘여가생활의 질적 만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22.6%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발생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서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분야 및 목적(단위 : %)



- 사업에 참여한 연차는 1년차(36%)와 2년차(31%)가 가장 많았고, 3년차와 4년차는 각각 18.5%, 10.4%를 차지했다. 이는 이번 설문조사가 코로나19 발생 전후 변화를 보고자 '19년과 '20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 마을지기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69.4%였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24.6%였다.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표 22.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만족도

항목	빈도(명)	백분율(%)
(불만족+매우불만족)	16	5.4
(보통)	73	24.6
(만족+매우만족)	206	69.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0.3
만족하지 않는다	15	5.1
보통이다	73	24.6
만족한다	157	52.9
매우 만족한다	49	16.5
합계	295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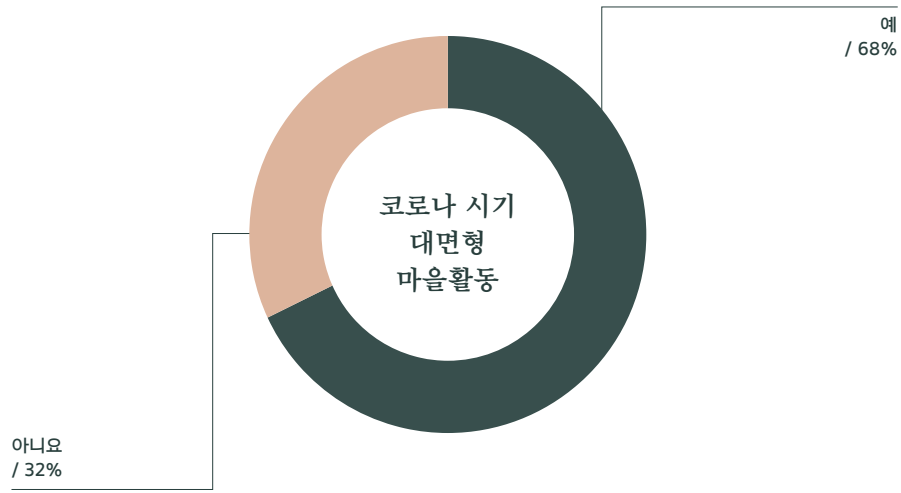
(2) 재난과 마을회복력의 중요성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지속된 마을공동체 활동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대부분의 공공 다중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2.5단계에서는 음식점, 카페 등 민간 사업장의 야간시간대 영업을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관계들로부터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대면형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지기 응답자의 68.4%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물리적 공

그림 11. 코로나시기 대면형 마을공동체 활동 유무



간'에서 이뤄진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 코로나 확산시기 마을지기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바로 전환하기 보다는 대면형 모임을 하되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을 주로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 진행하였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최대한 진행하였다'(18.4%)는 응답은 그보다 낮았다.

표 23.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을공동체 활동 진행 방식

항목	빈도(명)	백분율(%)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획대로 최대한 진행	45	18.4
활동 규모 축소하여 최소한 진행	117	47.8
코로나19 종식까지 사업 지연	16	6.5
사업을 축소하여 진행하는 것을 준비중	28	11.4
전면적 활동 축소 또는 폐업	19	7.8
코로나 발생 이전과 변화없음	3	1.2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	10	4.1
기타	7	2.9

- 도서관,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각종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던 반면, 소규모 마을공동체 활동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이다.

○ 대면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 근린생활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분산된 활동

- 이처럼 마을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마을 활동이 근린생활권 내에서 작은 관계망을 통해 이뤄지는 활동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근린생활권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하는 가까운 구역의 범위'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마을지기들의 주된 활동 반경은 근린생활권이였다. 마을지기의 마을 활동 반경은 도보10분~30분 내 범위인 경우가 46.5%로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표 24. 마을지기의 마을공동체 활동 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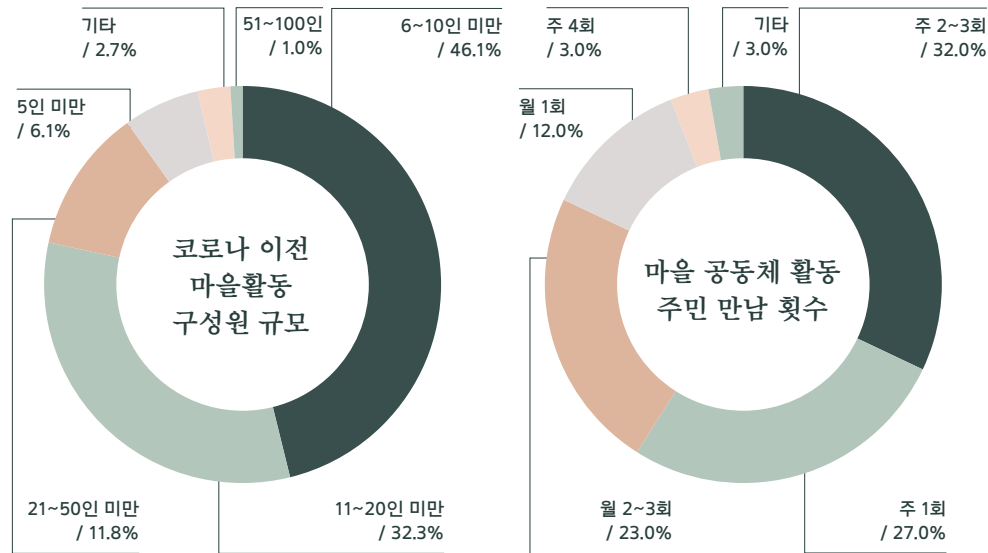
항목	빈도(명)	백분율(%)
도보 10~30분 내	138	46.5
1~2개 동	48	16.2
3~5개 동	16	5.4
활동지역구 전체	81	27.3
타 지역구	7	2.4
기타	7	2.4
전체	10	4.1

- 두 번째로, 마을 활동이 소규모 인원이 만나는 작은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을지기 응답에서 나타난 마을 활동의 구성원 규모를 보면, 구성원 수가 '6~10인 미만'인 경우가 4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11~20인 미만'이 32.3%, '21~50인 미만'이 11.8%를 차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이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마을 활동은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유지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셋째로, 신뢰하는 이웃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망이라는 점도 마을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마을지기들이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횟수를 보면 매 주마다 만나는 일상적인 관계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마을지기들이 주민과 만나는 횟수는 '주 2~3회'가 3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 1회'가 26.6%로 높았다. '주 4회 이상' 주민을 만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매주 주민과의 교류와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61.6%인 것으로 파악된다.

-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마을'은 재난시기에도 작고 안전한 관계망이 지속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 회복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재난 안전망의 기초 단위로써 '마을'이 중요한 정책 단위로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12. 마을공동체 활동 규모와 만남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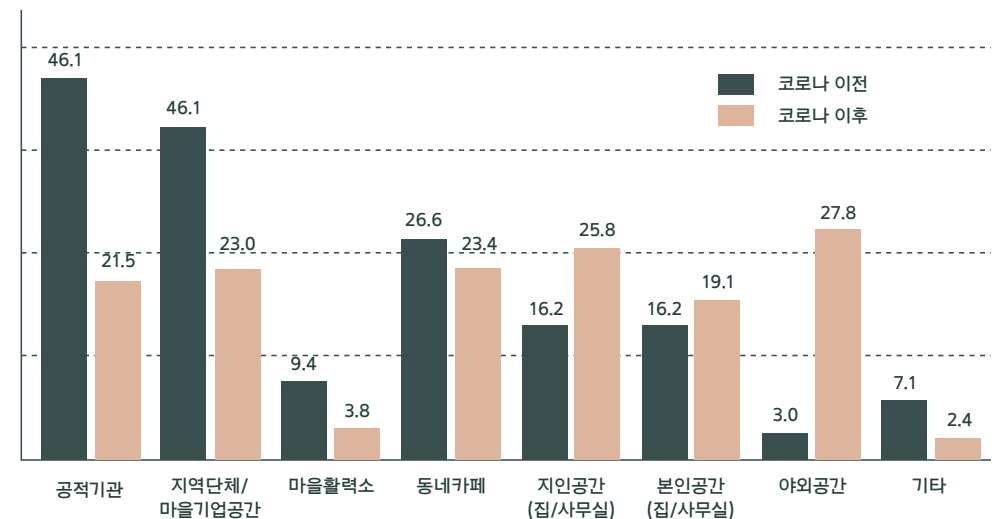
(3)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변화

○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야외공간, 사적공간에서의 활동 증가

- 코로나19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활동 공간이 달라진 것이다. 마을지기들의 코로나 확산 전후 활동 공간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확인된다. 코로나 발생 이전 마을지기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공공시설(46.1%)과 지역단체/마을기업공간(40.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적 기관·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공공시설과 지역단체/마을기업공간 활용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는 마을활력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9.4%에서 3.8%로 낮아졌다.

- 코로나 이후 공적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마을지기들은 그 대안으로 야외공간 또는 지인공간을 주로 활용하여 활동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주요 활동 공간은 '야외공간'이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지인공간(집/사무실)'이 25.8%로 그 뒤를 이었다. 실내 모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야외공간에서의 활동이 늘고, 이웃 주민의 집 또는 사무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모임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3. 코로나 이전/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중복응답)



○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과 정보 공유, 참여 주민의 증가

- 코로나 확산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또 다른 변화는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늘어난 것이다. 마을지기들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주민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의 게시글과 댓글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그렇다’(10.5%)와 ‘그렇다’(31.2%)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41.7%에 달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채널에 참여주민이 늘었다’는 응답의 경우도 ‘매우 그렇다’(11.3%)와 ‘그렇다’(27.7%)로, 39%가 주민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한편, 마을지기들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지기의 54%가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화상회의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을 통해 다른 주민들과 소통하며 심리적으로 연결되고,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확인되는 지점이다. 한편, 마을지기들의 경우,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마을지기들이 마을 외부의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거나, 서울시 중간 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5. 온라인 소통/비대면 방식 활용 정도(마을지기)(단위 : %)

항목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비대면 화상회의가 늘었다	5.1	19.0	21.9	36.3	17.7
온라인 소통 채널 게시글/댓글이 늘었다	5.5	17.7	35.0	31.2	10.5
온라인 소통 채널 참여주민이 늘었다	4.2	18.1	38.7	27.7	11.3

- 마찬가지로, 마을지원그룹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의 역할을 유지했다. 지원그룹의 응답 결과에서, ‘온라인 콘텐츠 업로드 횟수가 늘었다’는 답변은 71.9%였으며,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늘었다’는 답변 또한 70.9%로 매우 높았다.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과 공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콘텐츠의 조회량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한 정보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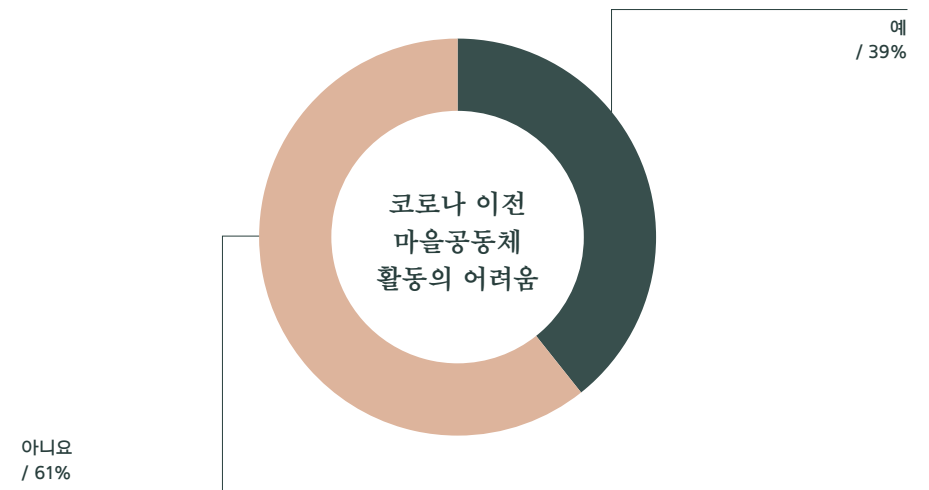
표 26. 온라인 콘텐츠 활용 정도(마을지원그룹)(단위 : %)

항목	매우줄었다	약간줄었다	변함없다	약간늘었다	매우늘었다
온라인 콘텐츠 월별 업로드 횟수	0.0	11.5	16.7	49.0	22.9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	0.0	12.5	16.7	52.1	18.8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0.0	7.2	16.5	40.2	36.1

(4) 코로나19가 마을활동가에게 미친 영향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재난 극복 활동 사례들은 재난 복구과정에 마을의 회복력이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회복 에너지가 계속 발휘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마을활동가들도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인 문제, 가족 돌봄의 공백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장기간 놓인다면, 마을회복력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요인과 마을활동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의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4. 코로나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여부



○ 코로나19기간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 구체적인 대응책 부재, 활동 지속에 대한 불안감

- 먼저, 설문에 응답한 마을지기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이전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로 높았으며, 어려움을 느낀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이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 부재 및 시설 미비'(41.9%)의 문제였다.

-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의 달라진 점이 포착된다. 마을지기들은 코로나시기 활동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코로나 대응 지침과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31.4%),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우울한 상태(28.4%), 대면 활동이 중심인 마을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28.4%)을 꼽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그에 적절히 대응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의 계획이나 방식을 조절하거나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관계들이 축소되면서 마을활동가들이 심리적 위축 상태에 놓여있으며, 마을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제약 요인(중복응답)

항목	빈도(명)	백분율(%)
코로나 대응 지침과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음	72	31.4
지역 내 복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	30	13.1
전면적 활동 축소로 인해 우울 상태가 지속됨	65	28.4
전면적 활동 축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18	7.9
비대면 방식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	37	16.2
비대면 방식 전환으로 직간접적인 비용 발생	30	13.1
대면 활동이 많은 마을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65	28.4
이동제한, 개인정보 수집 등 강한 통제에 따른 제약	28	12.2
기타	10	4.4
전체	35.5	155.0

○ 활동가들의 회복력은 어떤 상태인가 - ❶ '관계의 축소'가 가장 큰 어려움

- 개인적 차원의 회복력 상태를 파악하고자, 마을지기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지를 물었다. 응답 결과, 마을지기들은 '대면 활동 감소에 따른 관계 축소(77.4%)'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70.4%)'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 마을지기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온 적극적인 주민이다. 이들은 그동안 마을의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과 교류하고 나누는 활동의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데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온 마을회복력의 촉진자들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이 줄어들고 관계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하여 마을지기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과 불안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표 28. 코로나19 이후 마을지기들이 겪는 어려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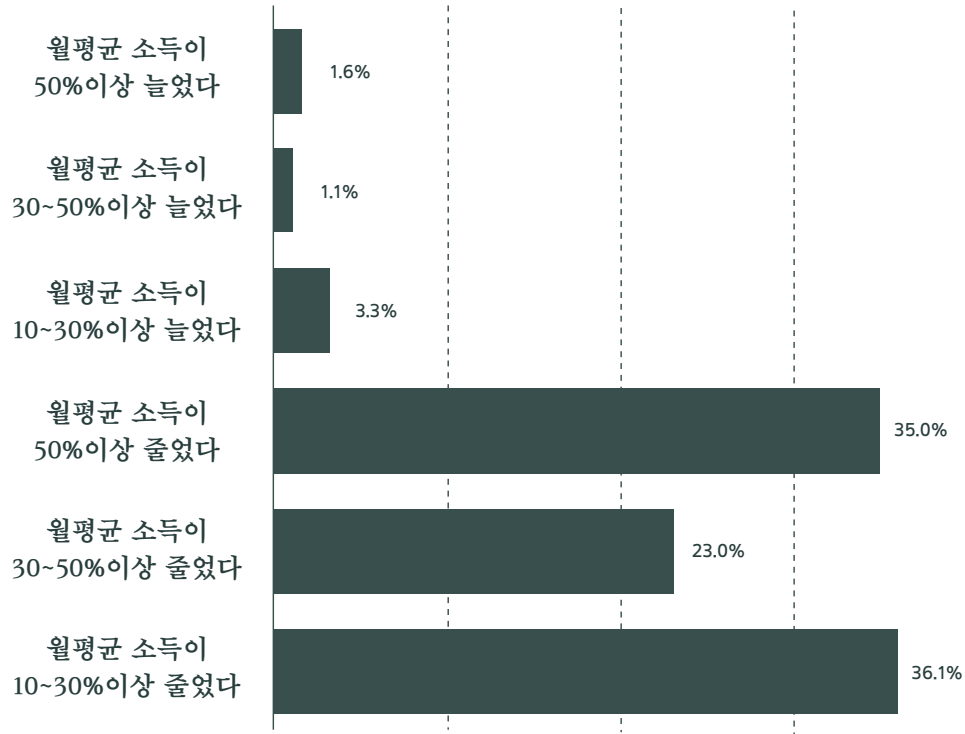
항목	빈도(명)	백분율(%)
경제적 어려움	43	14.5
심리적인 문제(고립감, 우울 등)	92	31.0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	209	70.4
대면활동 감소에 따른 관계의 축소	230	77.4
디지털 격차에 따른 박탈감	12	4.0
기타	8	2.7
전체	594	200.0

○ 활동가들의 회복력은 어떤 상태인가 - ❷ 경제적 회복력 매우 취약

- 본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마을활동가들의 경제적 회복력이 매우 취약해졌음이 확인되었다. 마을지기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지기 전체 응답자의 36.1%가 '전년 대비 월 평균소득이 10~30%가 줄었다'고 응답했고, '월평균소득이 50%이상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35%, '30~50%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23%였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모두 합치면 전체 응답자(297명)의 94.1%에 달한다.

- 이처럼 마을지기의 90%이상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현실

그림 15. 전년 대비 월평균소득의 변화(마을지기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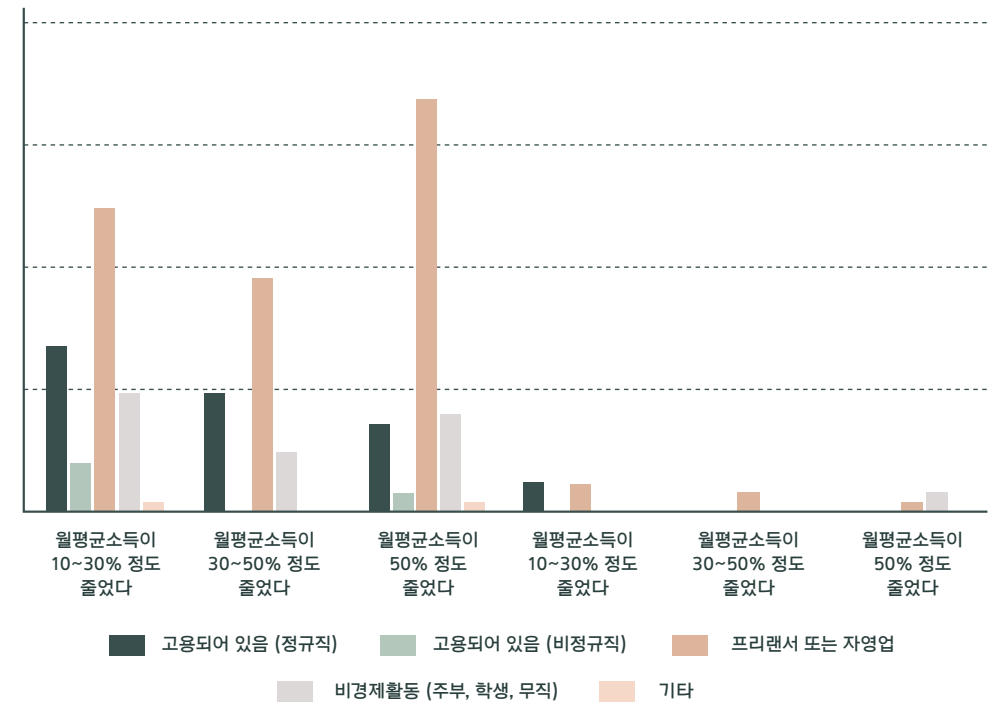


은, 최근 정부 통계청에서 파악한 계층별 전년 대비 소득감소 경향과도 유사하다. 통계청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시장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는 지난해보다 9.8% 감소했으며, 2분위는 5.6%, 3분위와 4분위도 각각 0.6%, 0.5%가 줄었다(통계청, 2020). 이 통계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마을지기들의 소득 감소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는, 현재 마을활동가들이 경제적 회복력이 상당히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마을지기들의 전년 대비 월평균 소득 감소가 10~50%로 높은 이유는 이들의 고용형태와 관련이 있다. 응답자 일반적 특성으로 파악한 고용형태와 월평균 소득 감소 응답을 교차 분석한 결과, 월평균소득이 10~30%, 30~50%, 50%이상 줄었다는 모든 응답 항목에서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고용형태를 갖는 이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처럼 마을지기의 대부분이 고용과 소득안정성 면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제적 회복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점은 마을공동체의 회복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으로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마을활동가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마을공동체 내 축진자인 마을지기의 경제적 회복력의 약화는 마을공동체 전체의 회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16. 응답자 고용형태별 전년 대비 월평균소득 변화(마을지기 응답)/ (단위: 명)



○ 활동가들의 회복력은 어떤 상태인가 - ③ 심리적 회복력도 매우 낮아져

-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마을활동가들의 심리적 회복력의 상태이다.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경험하고 있는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현재 마을지기들의 심리적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마을지기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파악하여 그 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로, 특정 집단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전체 인구집단의 인지율을 비교하여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반인구집단의 스트레스 인지율 관련 통계와 현재 마을지기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다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만 아직 코로나 발생 후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마을지기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정도로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 조사결과, 마을지기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7.1%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8년)의 29.1%, 지역사회건강조사(2019년, 서울) 27.2%와 비교해 약 1.5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이는 마을지기들의 현재 심리적 회복력의 상태를 진단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마을지기들의 심리적 지원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의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자살률이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것이 유예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마을활동가들을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라는 이런 긍정의 영향력을 마을에 전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영향을 받은 또 사람들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긍정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 서흥교 (금천구 마을지기, ‘독산마루’ 대표)

표 29. 마을지기(코로나 이후)와 일반인구집단(코로나 이전)의 스트레스 인지율 비교

항목	코로나19 이후 마을지기의 경험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서울)
스트레스 인지율 (최근 1개월 내 스트레스를 느낀 경험)	47.1%	29.1%	27.2%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도 마을활동가의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 중에서 한 사례를 소개하면, 금천구의 마을지기인 서흥교 씨는 마을활동가들의 심리적 안전망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긍정의 영향력을 마을에 전파하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긍정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활동가의 심리적 회복력이 마을공동체 전체의 회복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코로나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정책에서 마을활동가의 심리적 지지와 연결망을 복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뉴노멀과 마을

1. 마을의 재난 극디지털 전환이 전환할 수 없는 것, 돌봄

: 뉴노멀 시대 불평등 문제해결은 돌봄공백의 해소부터다

II 장에서는 ‘코로나19와 마을’이라는 주제 아래 2019~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마을지기과 마을·자치공동체를 지원하는 지원그룹 등 2개 그룹 약 4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마을이라는 기초단위에 미친 영향과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활동가들로부터 활동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III 장에서는 총 8인의 인사이터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뉴노멀’에 대하여 진단하며 향후 마을공동체 변화 방향을 모색해본다.

인사이터는 ① 코로나19 대응활동 특징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와 참고 사례 탐색 ③ 뉴노멀 진단 등 총 3가지 테마로 8인을 선정했다. ①번 주제와 관련해서 주민모임 주도 코로나19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금천구 독산마루 서흥교 대표와 건강한농부협동조합 김선정 전 이사장을 비롯해 각각 지원그룹과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주도하며 회자된 지역인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박진갑 센터장,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윤성미 총괄국장 등 총 4명이 인터뷰이로 나섰다. ②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김지연 교육총괄과 강북구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이동규 이사, 노원구 상계10동에서 로컬랩동네발전소를 실행중인 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강봉심 씨 등 3명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방향 모색에 있어 현재의 성과와 참고할만한 사례, 시사점을 짚는다. ③번 주제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이 뉴노멀에 대하여 진단하고 향후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8명의 인사이터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돌봄’ 공백을 뉴노멀 시대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선결과제 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이들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속도에서조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컬회복력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국가 정책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난이 상시화 되고 지금까지의 재난과 질적으로 다른,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재난에 맞는 마을단위 새로운 재난대응체계와 거버넌스의 필요를 동시에 역설한다.

○ 경제적 어려움 보다 홀로 돌봄을 감당하는 것이 더 힘들어

마을지기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61.6%가 전년 대비 월평균소득에 변화가 있었고 소득변화가 있는 응답자의 94.1%는 전년 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월평균소득 감소 비율과 관련해 50% 이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5.0%, 10~30%는 36.1%, 30~50%는 23.0%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전체응답자 296명 중 34%, 약 100명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대비 반토막 이상 또는 절반 가까이(30~50% 감소)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소득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96.7%가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데 반해 코로나 기간 동안 필요했던 지원 내용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인건비, 임대료, 생활비 대출 등)보다 ‘공간 및 시설 지원(28.3%)’이나 ‘우울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21.1%)’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지역 일자리 예산 지원(9.6%)과 같은 경제적 지원 보다 마을공간 지원(22.2%)이나 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21.8%)과 같은 인프라 지원 요구가 월등히 높았다.

이들은 코로나시기 마을활동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7.2%) 보다 대면활동 축소에 따른 관계 축소(38.7%)가 더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을 더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마을지기들은 응답자의 83.2%가 여성이었고 3~4대 응답자가 절반 이상(66.6%)이며 직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가 전업주부(29.3%) 또는 방과후교실 교사 등 교육관련직(12.5%)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 마을활동 참여분야에 대하여 51.5%가 문화공동체, 30.0%가 돌봄·교육공동체 라고 응답했고 코로나 이후 가장 필요한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공동체 32.1%, 돌봄·교육공동체 29.8%, 생활 또는 경제공동체가 각각 17.2% 등 순으로 응답했다. ‘돌봄’을 넓은 의미로 보면, 마을지기들은 마을활동을 통해 스스로 심리적 위안을 받거나 이웃과 함께

가족을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해왔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응답자 특성을 고려해볼 때, 마을지기들은 경제적 어려움 보다 비대면 활동 지속에 따라 혼자 돌봄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인사이터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도 언택트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로 “돌봄대란”을 가장 먼저 꼽았다.

○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돌봄의 연대, 사회적 돌봄으로 인정해야

마을공동체는 복지영역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도 재난으로 광범위해진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돌봄의 연대였다.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총괄국장 윤성미 씨는 누군가에게는 돌봄은 그 자체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한다. 윤성미 씨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 지역 곳곳을 살피면서 어디가 어려운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발생하였는지 더 찾아야할 지역복지협의체가 오히려 전면 폐쇄되면서 서비스 부재에 따른 영향이 서비스를 통해 삶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역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중심 장애인재활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함께 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강봉심 씨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되면서 장애인들의 고립에 따른 부작용은 비장애인의 그것 보다 더 심각했다고 말한다. 강봉심 씨는 “건강과 돌봄 활동 중 하나로 연례행사처럼 1년에 2번 버스 타고 이제 좀 이렇게 등산 나들이도 가는 등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 진료 외 문화 활동들이 코로나 19 이후 전면 중단되면서 이들은 더 외롭고 더 배제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시설 80%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10동 로컬랩동네발전소와 더불어 노원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 강봉심 씨는 장애인 조합원들과 함께 마을치과와 한의원 등에서 발열 체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강봉심 씨는 “참여한 장애인 조합원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아 이럴 때 도움 되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외 코로나19로 소외되거나 단절된 위기의 이웃을 지원하는 사례도 마을공

동체 곳곳에서 확인된다.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진갑 씨는 “3월 마스크 대란 시점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캠페인을 했다”며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약국에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을지기들이 만든 7천개의 면마스크를 우선 지급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었던 마을기업도 나섰다. 건강한농부협동조합 전 이사장인 김선정 씨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은 못했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마을활동을 해왔던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경로식당 등이 멈춰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홀몸어르신을 위하여 캔, 햇반, 라면 등 저장식품이 아닌 좋은 재료로 만든 반찬꾸러미를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제작해 10개 전동 매주 5~60명씩 총 600여명의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마을지기 대상 설문에서 코로나19 대응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111명 중 43.2%는 이웃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시기 지원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34.2%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더 필요한 곳에 먼저 재정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광역센터에서 자치구별 마을자치 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활동을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다. 마을공동체는 발생 초기에는 집단발발이 있었던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발생 중기를 넘어서는 지역의 이웃을 살폈다.

○ “통반장에서 돌봄반장으로” 마을공동체 = 돌봄안전망

마을지기들은 향후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집중해야할 지원 내용으로 공간과 미디어 활동지원과 더불어 대상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마을지원그룹은 코로나 이후 가장 집중해야한다고 보는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에 대한 응답에 가장 많은 수(43.4%)가 돌봄·교육공동체 라고 응답했으며, 코로나 이후 강화해야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안정적 마을공간 운영(26.9%)에 이어 대상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확대·지원(19.9%)이라고 응답했다.

상계10동 로컬랩동네발전소를 운영중인 강봉심 씨는 행정의 필요에 의한 통반장에서 마을의 필요에 의한 돌봄반장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봉심 씨는 “활동가 한명이 한 분당 4시간씩 할애하여 만난다. 우울 치료 모임, 바르게 걷기, 돌레길 걷기, 책읽기 등 건강만이 아니라 돌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에 맞춰 하나씩 함께 한다.

이제 마을에는 돌봄반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은 공동집필한 책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에서 “코로나 사태를 경과하며 우리 사회는 ‘제도를 통해 보장받는 계층’과 ‘제도적인 보호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계층’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언택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골을 더욱 깊숙이 만들었다¹⁴⁾”고 말했다. 유창복 소장은 언택트가 일정정도 불가피하지만 근린생활권 내 소규모 대면활동을 의미하는 ‘로컬택트’로 전환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창복 소장이 말하는 ‘로컬택트’의 주 골자는 돌봄안전망이다.

유창복 소장은 심층인터뷰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고 이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이 가장 효과적인 돌봄안전망”이라며 “공공의료체계와 연결된 마을돌봄안전망 구축은 상시와 비상시의 공공의료자원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5. (좌) 삼양동 마을관리소 개소 사진

(우) 노원구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낙상예방 운동 교육 사진 - 출처 : 이동규 페이스북



14)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기획, 책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2. 회복력의 핵심, 전국민 고용보험의 근간 로컬경제

: 로컬회복력의 강화 없이 뉴딜은 없다

○ 재난 이후, 안전망과 일자리를 함께 챙기는 로컬회복력 높여야

유창복 소장은 회복력과 경제는 별개가 아니며 재난이 상시화된 시대 회복력은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안전망과 일자리를 함께 챙기는 로컬회복력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번 연구에서 마을지기의 설문결과를 비롯해 하반기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를 보면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은 물론이며 소위 중위계급까지 넓은 계층이 경제기반의 붕괴와 더불어 돌봄, 의료 등 제도적 안전망의 동반붕괴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복 소장은 경제와 회복력을 통칭해 ‘로컬뉴딜’이라고 일컬으며 현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전략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중 그린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로컬뉴딜’ 실천전략의 핵심은 돌봄안전망 등과 같은 동네의 필요를 서비스생산·공급전달체계 즉 경제적 순환체계로 지속가능하고 재난시 취약한 개인의 안전망이 되는 공동체의 로컬회복력을 어떻게 갖추나갈 것인지 라고 말한다.

유창복 소장은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하나인 ‘로컬랩동네발전소 사업’이 참고할 모델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로컬랩동네발전소 사업’은 동단위 보다 작은 규모의 생활권에서 2가지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동네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아온 주축(앵커)조직을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소규모 모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보다 지원 규모면에서도 크고, 단기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해결의 수요가 경제적 규모로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슈를 지속가능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센터는 ‘로컬랩동네발전소 사업’을 2018년 2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9개 지역 9개 케이스까지 확대해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상계10동 로컬랩동네발전소 모델은 함께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상계

10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모델이다. 단장인 강봉심 씨는 “단지 안에 있는 약을 꺼내 먹는 일과 같은 비장애인이라면 너무 손쉬운 일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119를 부를 수 없는 장애인이나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급을 받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조합원끼리 긴급연락망을 만들어 상호돌봄을 하는 돌봄안전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실태조사해보니 7단지 270명 중 1/3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강봉심 씨는 “커뮤니티케어나 돌봄SOS 등과 같은 돌봄 모델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제도가 가 커버해주지 못하는 빈구석을 민간영역의 연대와 상호돌봄을 통해 시도해보는 것이 그 시초가 되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5~6명씩 수요그룹을 묶어 함께 콩나물키우기, 견기 등의 모임을 구성하고 있고 시범으로 30명 신청을 받았는데 바로 마감되었다”고 말했다. 상계10동 7단지 21개동 2,634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로컬랩동네발전소를 하며 근린생활권 내 돌봄안전망에 대한 주민수요를 확인한 셈이다. 강봉심 씨는 재건축 이슈와 맞물려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고 경제수준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제도 밖에서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강봉심 씨는 “노원구는 10동의 시범동으로 시작해 올해 19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며 “주민자치회 내 돌봄분과를 요청하여 노원구 전 지역 돌봄 문제를 분과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이사인 이동규 씨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로컬랩동네발전소 사업’ 2년째 선정되어 사업을 실행 중이다. 이 지역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구상을 위해 한 달간 옥탑에서 거주하여 더욱 알려진 동네인 삼양동이다. 이동규 씨는 “삼양동 지역은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다. 공론장을 통해 가장 많이 도출된 의제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택배회사에서 기피하는 동네라는 것이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과 더불어, 택배서비스와 같은 주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소를 만들자고 주민들과 의견이 모아져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문을 연 마을관리소는 지역의 소규모 일거리와 연계해 대형트럭이 접근가능한 동네 아래 택배정거장과 택배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1차 사업으로 오픈했다. 수요가 이미 확인된 지역이라 확실히 다른 지역과 달랐다. 이동규 씨는 “현재 공생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꽤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버물류택배사업을 하며 대기업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공생사회적협동조합과 MOU를 맺어 주민들의 수요를 연계하는 것을 우리의 역할로 협업중”이라며 “수급자분들의 재활, 재취업의 기회를 계속 지역에서 제공하는

차원으로 택배배송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지역의 강북지역자활센터와도 협업하고 있으며 택배를 택배정거장에 모아놓으면 지역자활사업단에서 의정부의 물류센터로 가져가는 것도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동네 수요를 연결한 모델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원주민을 내 는 방식의 하드웨어나 인프라 구축이 아닌 지역 공동체 환류를 고민한 사업 개발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동규 씨는 또 “삼양동 마을관리소에는 총 14분의 주민분이 50+보람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택배수거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 한 분 당 57만원, 원천세를 떼면 약 50만원 정도 되는 소액의 일거리지만 그 분들에게 꽤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주민분들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여기서 100원은 마을기금으로 모은다. 그렇게 모인 마을기금이 동네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10동과 강북구 삼양동 사례는 돌봄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유창복 소장은 “정책결정과정의 상층 거버넌스가 아닌 실제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장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라며 “문제의 제기부터 서비스 구성, 전달서비스체계까지 관을 깔아주는 공공의 지원과 다양한 민간이 협업하여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경제와 안전망이 결합된 로컬회복력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규 씨는 “공론장에서 삼양동 지역은 127개의 지역 의제가 나왔다”며 “마을관리소는 동단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다양한 의제들이 망라된 동단위 플랫폼의 역할로의 확대를 고민중이다.

○ 마을지기 인정체계와 참여소득, 전국민 고용보험의 근간

로컬랩동네발전소 사업 중 노원구 상계10동은 동주민자치회 돌봄분과와의 연계, 강북구 삼양동은 다양한 의제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넓혀볼 계획을 갖고 있다. 마을지기와 마을활동가, 마을지원그룹은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의 환류모델을 만들어내고 인정체계를 구축해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돌봄의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호혜적 관계망 이라는 마을공동체를 제도 이전의 안전망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개인

의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안전망은 코로나19 범유행시에도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 마을지기들은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활동 참여와 이웃의 피드백만으로 심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72.4%)한 응답자의 29.6%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주민 활동의 인정과 보상’ 이라고 제 1의 이유로 꼽았다.

유창복 소장은 “지역 안에서 다양한 역할과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NGO, 사회적경제 기업, 개인 혹은 프리랜서, 자생적 주민모임 등이 지역이라는 단위별로 묶이고 이런 공급자들(일거리)과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연계한 플랫폼을 지역사회의 필수노동인 돌봄 영역부터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플랫폼 기업으로 마을관리소가 보편적인 플랫폼 형태일 수 있다. 동네의 다양한 문제와 필요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업의 형식으로 회복력을 갖게 할 것인가 핵심이다”라고 말한다.

유창복 소장은 이 플랫폼에 공공의 기존 지원시스템이 연계되는 것을 재정조달의 기본으로 한다. 유창복 소장은 “의료보험, 요양보험 등 공공부조체계와 연결하여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하는 서비스를 대신 하는 주체에게 복지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연계하는 것이 한 축”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연구중인 LAB2050은 최근 리포트¹⁵⁾에서 이를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안(Atkinson, 1996)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는 유급 고용 및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구직활동, 승인된 교육과 직업 훈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활동, 승인된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되며 질병이나 재해,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최소 은퇴연령에 도달한 경우도 참여소득의 지급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Atkinsom, 1996:68)고 LAB2050은 소개했다. 미국은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아메리코’라는 시민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도모할 취지로 규정된 시간과 기간에 따르고

교육훈련 참가 등을 준수 하는 등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직업훈련과 일거리 연계를 하는 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유창복 소장은 위와 같은 참여소득을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이자 위기 극복 주체, 사회적 돌봄의 주체인 주민과 마을·자치공동체의 사회적 인정의 기본 담론으로 하여 다양한 중앙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보험체계의 자원들을 ‘마을관리소’라는 플랫폼과 연계하는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배달 등 각종 노동대행 플랫폼기업들이 최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가입 등 각종 수당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플랫폼을 통해 음성화된 시장을 양성화했기 때문(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라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안으로 들어와야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다고 현 정부는 주문한다. 이와 더불어, 마을관리소 등 플랫폼을 통해 역량이 훈련되고 검증된 주민들이 마을 내 비경제활동으로 치부된 다양한 사회적 돌봄노동 혹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다양한 실업부조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진정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출발이라고 덧붙인다.

15) [IDEA2050_033] 사회보장개혁+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의 혁신(백승호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운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출처 : Lab2050 블로그

3. 필수 생존 의제 마을공간과 마을미디어

: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재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마을공간, 일부 공적 기능 담당하는 공간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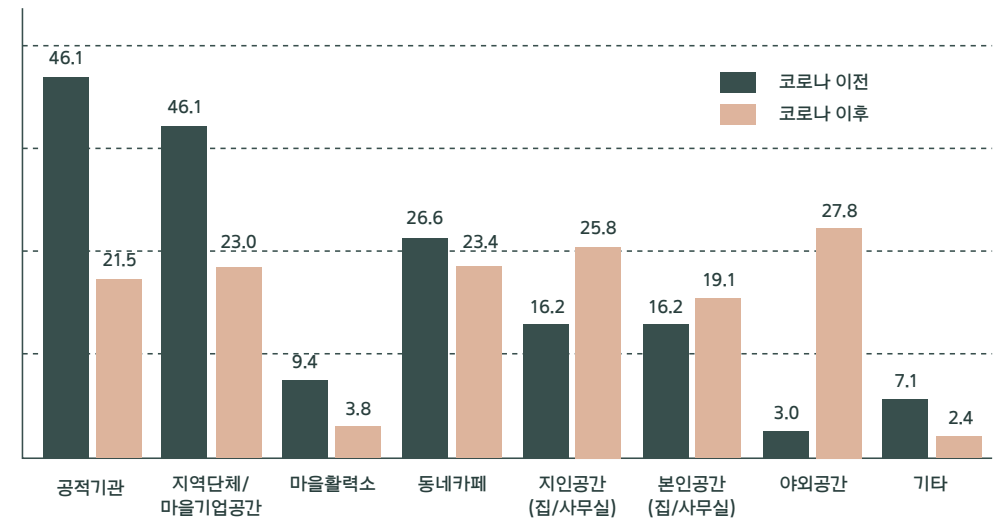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재난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며 생활터전의 물리적 파괴를 가져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에 재난 이후 예방과 대응, 복구 활동은 단순 물리적 복구와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일시적 의식주 제공,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재난·재해지역 구호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간 유형 연구 (20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의 국내에서 재난발생 이후 보급된 대피소 및 구호 공간 4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 의료서비스, 및 상담 공간과 봉사자들을 위한 행정관리 공간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으나, 봉사자들을 위한 휴식 및 주거 공간과 지역 사회와 이재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은 프로그램 자체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체육관과 초등학교 체육관 및 교실 등 기존의 다른 용도의 시설을 이재민 대피 장소로 임시로 사용하다보니 보급된 공간 대부분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했고 재난이 장기화 될 경우 이재민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 역시 임시적인 공간으로 구호 기능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지속적인 구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Crisisonomy Vol.15 No.10 - Spati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Disaster Risk, Vulnerable Population and Response Capacity - The Case of Cheongju City(오 후,배민기,김보은)> 연구보고서에서는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이 점차 대형화·다양화·복합화 되는 추세이며 가뭄, 집중호우, 폭염, 폭설 등 다양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상기상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과거에 유례없는 대형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적절한 사전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재난과 양상이 확실히 달랐다. 국지적이기도 일시적이기도 않았으며 생활터전의 물리적 파괴는 아니지만 봉쇄 조치에 따라 개인의 이동제한과 고립을 초래했다. 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재난은 인류에게 생활양식의 변화를 빠르게 촉구했다. 구글이 집계한 ‘코로나19 이동보고서’에 따르면 9월 4일(화) 기준 서울·수도권의 2달간 공원이용율은 기준값 대비 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지기의 활동에도 변화는 보였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변화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마을지기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공공공간과 지역단체 및 마을활력소 같은 마을공간을 주로 이용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① 야외공간 ② 지인의 사무실 또는 집 ③ 본인의 집 또는 사무실 등의 순으로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코로나 이전/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중복응답) - 재사용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이사인 이동규 씨는 “삼양동은 25년 이상 되는 노후주택이 85% 이상인 동네로 열악한 주거공간 안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때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삼양동은 조그마한 쉼터나 자투리공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나 골목이 있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힘을 얻는다. 이런 재난 상황일 때 마을의 유희공간이나 마을공간들은 병원, 상호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되어

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 마을공간의 필요는 많은 곳에서 포착된다. 마을지기들이 지원의 1순위로 꼽은 것도 ‘공간 및 시설’이었다. 독산마루 대표 서흥교 씨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까지 주민들의 요청으로 소극적이지만 공간을 운영했었다. 서흥교 씨는 “2단계였을 때는 열어도었지만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니 주민들도 이 공간도 공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오기를 꺼려한다”며 “그러나 이주여성자조모임 같이 돌봄을 꼭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자조모임들은 만남의 횟수나 시간은 줄어도 꾸준히 공간에서 모임 활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런 자조모임이 독산마루와 같은 마을공간을 소극적이거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가능한 범위 내 특정그룹이 작은 단위로 모이는 특징 때문이다. 강서시민플랫폼 총괄국장 윤성미 씨는 이런 공공공간들이 폐쇄되거나 풍선효과처럼 더 위험한 사설시설을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윤성미 씨는 “생활의 공간에서 아이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근처 도서관은 폐쇄를 하다 보니 오히려 스터디카페에 몰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 같다”며 “전면 폐쇄 결정이 아니라 공공의 파트너로 협력체계를 만들어 작은 단위로 모이는 마을의 공동체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츄츄하고 일상에서 접근가능한 안전망의 필요는 이번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마을지원그룹에게 마을지기 또는 마을의 주요 활동가그룹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마을지원그룹 응답자 99명 중 54.5%가 공간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4%로 높았다.

더불어 마을지원그룹은 코로나 이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내용에 대해서 ‘대상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확대·지원’ 보다 ‘마을공간 안정 운영 및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마을지기들도 22.2%가 ‘마을공간 지원’을 근소한 차로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21.8%)’을 2순위로 꼽았다.

마을지기들은 이번 설문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활동의 어려움으로 ‘코로나 대응단계별 지침과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20.3%로 가장 많은 수가 응답했다. 무조건적인 폐쇄와 전면 활동 중단이 아닌 활동시 지켜야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다.

사유화된 공간과 사적 자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언택트’는 감수 가능한 불편일 수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서비스로 삶을 유지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양한 공유공간과 시설들의 폐쇄는 그 자체로 불평등 전면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위기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유행과 같은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른 것이라면 이제 마을공간은 사회적 돌봄과 심리적 방어의 공간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재난시 도서관·복지관·문화센터 등 기존 공적 서비스의 공백을 담당하고 단계별 운영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미디어 활용, 필수 생존 수단이 되었다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QR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시범운영이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음식점·종교시설·병원·영화관·도서관 등 19개 시설에서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시작했을 무렵 <건강한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안내(6월5일)>와 <마을미디어,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 매뉴얼(6월16일)>을 마을미디어 사업지기를 대상으로 두 차례 공지했다. 전자는 마을미디어 공간 이용수칙과 활동수칙 안내를, 후자는 방역물품 구입 등 기존 사업비 항목을 확장해 사용가능하다는 안내와 사업계획 변경 검토요청, 프로그램 진행시 예방조치 등이 주요 골자였다.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지기들은 높은 미디어 활용능력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능동적으로 활동했다.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3월 31일 ~ 4월 6일까지 마을미디어 사업지기들에게 설문¹⁶⁾을 한 결과 응답 47개 그룹 중 30개 그룹이 달라진 콘텐츠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9일 서울마을주간 기획컨퍼런스 ‘코로나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 대응사례와 지원방향’ 세션에서 김주현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 기획운영팀 팀장은 “전 지

16)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설문 - 마을미디어, 잘 지내고 있나요?>

구적 위기로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서 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를 가장 잘 포착하는 것이 마을미디어"라고 말했다. 마을미디어 사업지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외되거나 주목해야 할 이야기들을 발굴했다.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 집단발생이 발생했을 때 실제 조현병 환자가 폐쇄병동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비롯하여 지역의 수어센터와 연계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코로나19 정보 전달 콘텐츠(금천라디오),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주민들과 함께 한국방역정보 안내방송(동작FM) 등 마을미디어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가장 아픈 구석을 드러냈다.

미디어활용능력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김주현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마을미디어 간에도 격차는 발생했다"며 "구로마을TV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으로 정리한 생중계 실전 노하우'와 노원FM '노원, 마을미디어 온라인 실습교육의 첫걸음' 등 매뉴얼을 제작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전환을 고민하는 마을·자치공동체 지원도 했다. 김주현 팀장은 "종로구 주민자치회 3개동이 의제 공유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마을미디어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3개동 생중계를 위하여 창신동라이오 덤, 성북마을방송와보송, 마을미디어뽀이 협력해 온라인 의제 공유회를 진행했다. 마을미디어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방송"이라고 말했다.

재난시 마을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타 국가에서도 많이 확인된 내용이다. 일본 후쿠시마시 'FM포코'는 특별재난방송으로 편성되었고 후쿠시마시의 요청으로 출력 100W로 증폭해 재해대책본부의 소식을 수시로 전하고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다.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시웨이브FM이와키'는 지진 정보 특별방송을 한다. 미국 'KAMP 95.3 LPFM'은 이재민 대피소 앞 주차장에서 트레일러 형태의 스튜디오를 설치해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을 했으며 허리케인 리타이 강타했을 때 'WQRZ'는 침수상황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렇듯 마을미디어는 주류미디어에서 갈 수 없는 곳, 전할 수 없는 지역의 세세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한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립된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마을지기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99명 중 온라인 콘텐츠 월별 업로드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1.9%나 되었다. 조회수가 코로나 이전의 그것보다 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70.9%나 되었다. 마을지기그룹 응답자 중 온라인콘텐츠 제작 건수가 30배 정도 늘었다고 응답자가 있을 만큼 미디어를 활용해야 할 활동은 불가피하

그림 17. 서울마을주간 기획컨퍼런스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 김주현 팀장 발제자료 발췌



게 늘었다. 이러한 소통 방식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주민접근성의 제한'과 '지원업무 미숙과 역량부재' 등이 유사한 비율로 나왔다. 도구를 갖고 있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는 마을지기의 설문에서도 드러난다. 주민의 참여와 주민을 지원하는 지원그룹 모두 비대면 방식에 따라 사업(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낮아졌다고 말한다.

표 30.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따른 어려움

주민접근성/네트워크 저하	지원업무미숙과 피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방식이 주최자나 참여자 모두 아직 낯설기 하다 · 비대면 플랫폼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불편함 · 비대면 방법이 익숙하지 못한 주민의 참여, 어려움과 한계 ·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주민의 참여율이 낮다 · 비대면 사업으로 인원이 한정되어 어려움이 있었음 · 진행속도가 나지 않음. 주민간의 소통 어려움 · 주민의 비대면 방식의 자료 활용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니 피로도가 높고 영상제작의 어려움 · 비대면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아 피로도 있음 · 새로운 진행방식의 수용성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수어장애인들의 지원, 장비들의 지원, 비용증가 · 비대면 활용에 대한 역량의 부족으로 준비시간이 길어지는 점 ·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에 민-관 협력이 더디다 · 비대면 진행으로 계획 변경이 어려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었다 · 참여제한 실질적 축소 · 정보기술력의 편차로 인한 사업 소외 영역 발생 · 비대면 방식의 사업 진행이 마을활동의 성격상 효과적이지 못했음 · 화상회의 적응 문제 ·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해야 효과성이 좋는데 온라인의 한계가 느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활동방식을 기획하는 일 · 온라인 시스템 준비 미비 · 비대면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사업구상 한계 · 비대면 방식 증빙에 대한 행정과의 합의 어려움 · 비대면으로 재조정함에 있어 활동사례가 없어 사업 기획단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보태지고 실험적 요소가 부가되어 업무처리가 더 까다롭고 어려웠다
---	--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교육총괄 김지연 씨는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비대면과 대면 모두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며 “누구나 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비대면 방식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끼리만 해, 그래도 같이 해야지,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것이 더 후져, 이런 걸 계속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방식이 바람직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 향후 미디어 리터러시, 도구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불가피한 역량이 되었다. 김지연 씨의 말처럼 단 한명도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마을미디어 인프라 구축과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미디어지원센터의 역할과 다른 축으로, 마을지기와 마을지원그룹, 더 넓은 마을주민 대상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4. 뉴노멀 뉴퍼블릭

: 재난의 상시화,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를 마을에서 구축하다

○ 사각지대가 90%인 사회, 더 촘촘히 더 세세하게, 사회안전망 민과 협력해 구축

언택트의 상황은 언뜻 거리와 차이를 0으로 수렴하는 듯 보이지만 ‘언택트’로 접속된 소수와 언택트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다수가 극명히 드러나는 세계다.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은 공동집필한 책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에서 “우리 사회의 외적 번영에 의해 가려져 있던 아픈 현실이 속살처럼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언택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골을 더욱 깊숙하게 만든다”¹⁷⁾고 지적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동주민센터로 지원을 나갔던 성북 주민자치사업단 교육총괄 김지연 씨는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넓었다. 못 받는 분들이 2~30%는 되는 것 같았다”며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등 제외대상이었고 주소지가 안 맞거나 가족이 같이 살지 않고 흩어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지원하면서 가족구성원 삶의 다양성들이 드러나고 제도가 바뀔 때가 되었던 생각도 들었다”고 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하며, 수령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구성이 확인된 사례다.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동규 씨는 “삼양동이 워낙 고지대다 보니 주민들이 일을 의뢰를 해도 돈이 되지 않아 오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주거의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지만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이 이 삼양동 주민들은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많이 놓여있다”고 말한다. 상계10동 로컬랩동네발전소를 실행중

17)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기획, 책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인 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강봉심 씨는 “임대아파트 쪽은 오히려 복지관 등 사회서비스가 있지만 자가로 집은 하나씩 있지만 소득은 없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들도 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집들을 방문하면 더 열악한 경우도 많다”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불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행정이) 잘 찾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김화숙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지난해 말 ‘촘촘한 복지’라는 방향으로 제작한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에서 복지대상인 취약계층을 노숙인,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까지 폭넓게 제안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 등이 이미 무력해진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차원과 개인의 예방 차원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대상자를 둬으로써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성해나가기 위한 기초 현황자료인 셈이다. 대상은 넓혀졌지만 아직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이 말했던 바와 같이, 마을지원그룹들도 마을의 일자리와 안전망이 결합된 모델을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형태로 제안한다. 지원도 대상자별로 확연히 달라진다. 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공동 서비스 공급 그룹(다양한 민간)은 촉진만 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문제가 숨겨진 주민들은 사회참여 주체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성북 주민자치사업단 교육총괄 김지연 씨는 “마을과 주민자치는 기획력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증지를 모을 수 있는 촉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화상회의 할때 최소한 1명의 보조자를 뒤야 한다. 누군가 보면서 채팅방에 올라오는 거 체크해주고, 화면을 체크하면서 누가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를 해줘야지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삼양로컬랩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동규 씨는 “수급자분들의 경우,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분들이 방문하셔서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발굴에만 그친다. 솔직히 서비스를 제공하면 끝이다”며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주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의 전문가와 연결해서 해결하는 걸 돕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번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전방위적이고 인류 전체에게 타격을 미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층은 더욱 넓어지고 공공의 지원은 더욱 촘촘해지고 세세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 복잡해지고 풀기 쉽지 않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국가는 문제해결 주체에게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은 더 넓고 촘촘하게 구성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문제해결의 주체인 민과 더 많이 협력하여 복지체계를 구성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은 “국가가 문제해결능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며 “‘공유지의 비극’의 개릿 하딘이 말한 공동생산자처럼 시민이 참여했을 때 공공 문제에 문제해결력과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많은 실증을 통해 밝혀진 바, 그런 의미에서 민관협력의 참여 수준은 사회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자하는 공동생산자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교육총괄 김지연 씨는 “2015~16년 마을계획 수립 당시 주민들과 종암동 지역자원조사를 했다. 그때 알아낸 것이 독립운동가인 이육사가 ‘청포도’라는 시를 발표할 무렵 종암동에서 4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주민들과 3년 동안 이육사 관련하여 탐방을 다니고 답사도 갔고 종암중학교 사회선생님 및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육사 관련 교과서도 만들고 고등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학여행도 갔다. 그렇게 작년 말 종암동에 이육사문학관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만든 것이다. 그 자체로 교육현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동생산자로서의 주민과 지원그룹의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주민들의 참여로 만든 사업이 마을의 좋은 교육이 되는 과정이며, 주민들의 만족감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증이다.

○ 대응-회복을 위한 주민모임-지원그룹/문제해결그룹-정부 거버넌스 구성해야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다시금 조망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는 공공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은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전쟁’에 비유하며 흡사 ‘코로나19와의 전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가격리자를 감시하고 경제위기의 해결사로 나서는 등 ‘큰정부’로의 전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주관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정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월례포럼에서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이기호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향후 전환의 방향은) 국가의 강화라기 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맥락으로 봐야한다¹⁸⁾”고 말한다. 개인이 극복하기 어렵고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재난시 공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강력한 이동제한조치인 봉쇄조치를 취한 중국과 집단면역이나 증상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치료를 했던 유럽의 그 사이, 한국의 코로

18)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기획, 책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나19 대응은 선제적 진단검사 실행과 역학조사·격리자관리시스템 운영,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 다양한 민간과의 협력과 팀워크 등 ‘K-방역’이라 불리우며 국내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이 대응방식은 실제 확진자수를 관리하는 결과로 증명되었다. 유창복 소장은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방역 체계와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기동성, 시민들의 자발적 수용과 적극적 참여가 이뤄낸 결과”라고 덧붙인다. 실제 로컬단위 거버넌스¹⁹⁾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크게 활약했다. 서울시 강동구는 민관합동으로 작년말 구성된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국 마스크제고 현황을 보여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했고 성북구는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봉제공장과 협업하여 마스크 30만장을 유통했다. 수원시는 대학병원,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의료인을 총망라한 거버넌스인 ‘굿모인메디포럼’을 구성해 감염병에 상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위와 같은 민관거버넌스와 또 다른 축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듯 마을지기들은 스스로를 위기극복 주체로 자각하며 코로나19 필요한 방역물품을 생산·유통하고 취약한 이웃을 도와 돌봄의 공백을 메웠다. 이들 자생적 주민그룹이 제작한 마스크는 서울시 전역 아동과 장애인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의 양으로 그 파급력도 확인되었다. 확진자수 규모가 1,2,3위의 자치구의 경우, 이런 마을지기를 지원하는 지원그룹의 태도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반해 확진자수가 네 번째로 많았던 강서구는 지역 시민사회그룹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어 다양한 대응 활동유형과 그 규모에서도 괄목할만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과 회복력에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김도균, 2011)²⁰⁾.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와 수용성이 재난대응과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을지기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지침’을 각자 해석하며 각자의 위치, 할 수 있는 역할로 명실공히 위기극복의 주체로 등장했지만 그에 반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마을지기 등 자생적 주민조직과의 협력체계 미구축에 따른 문제점과 증후들도 발견되었다.

마을지기들은 이번 연구 설문 중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방향에 관해서 35.4%가 ‘마을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절차와 방식 개발’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시기 활동의 애로점과 관련하여 ‘코로나 대응단계별 지침과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음(20.3%)’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마을지원그룹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면/비대면을 병행하는 다양한 소통방식 발굴(39.9%)’과 더불어 ‘예산지원을 위한 행정 혁신(18.2%)’을 꼽는다. 사업을 변경해 진행해야 하는데 변경 절차가 까다롭거나 방역물품을 구비하거나 비대면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로 사업비 사용이 불가했다는 민원도 제기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방역지침을 지켜 마을활동을 지속하거나 코로나19 대응활동에 참여했던 마을지기들을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적극적으로 주체로 인정하는 한편, 재난이 상시화되는 시대 즉, 재난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현장인 로컬을 중심으로 이들 자생적 주민조직의 활동의 데이터가 다양한 사회변화를 읽는 지표이자 변화의 리트머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생적주민모임-지원그룹/문제해결그룹-지방/중앙정부로 이어지는 넓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한림대 의과대학 이재갑 부교수는 현 TBS 강양구 기자와 함께 낸 책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에서 “한국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루 신규 확진 환자의 숫자이다. 그런데 확진 환자의 숫자 자체는 아주 제한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확진환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지역사회 유행이 늘어난다는 또렷한 신호가 있다면 오히려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것²¹⁾”이라고 말한다. 이재갑 교수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판단내릴 때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야기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 재난경보단계 발행시 한 가지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 것이다.

10인 미만 주민조직(응답자 중 52.2%), 11~20인 미만 주민조직(32.3%) 등 개별화되거나 고립되지 않는, 분산되고 근린생활권 내 소규모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는 마을공동체 자생적 주민조직의 활동은 이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공공적 활

19)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기획, 책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20) 노원구 마스크 의병대 제작갯수 1,140,000개를 제외한 숫자이며, 이를 포함하면 1,260,663+α개임.

21) 생각의 힘, 이재갑·강양구, 책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동으로 인정 해야 한다. 이들이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상호돌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단계별 활동유형별 가이드라인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하고 이들의 활동데이터를 수집해 지역의 대응역량과 회복역량을 꾸준히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그룹 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교육총괄 김지연 씨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마을이 더 잘 돌아간다 라는 기조로 주민투표 최소 3% 라는 목표로 사전과 현장투표 등 총 1,200 명의 주민투표를 받았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짧고 빠르게 많이 받으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더 많이 우리가 적게 모이더라도 조금 더 긴밀하게 모이고 다시 네트워크 하는, 작은 네트워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활동여부와 시기, 활동내용, 모임의 규모와 횟수, 모임의 장소, 활동의 성과와 임팩트 등 자생적 주민조직의 마을활동과 지역의 시민사회자원은 지역의 재난 대응과 회복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사회의 위기단계를 확인하는 확진자수와 같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IV

마을의 정책 제안

: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이 국가차원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local)의 '균형 있는 재건과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

1. 총론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대담한 혁신

- 코로나19는 인류의 생존과 현 사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최근 전망들의 공통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총체적 위기의 사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총체적 위기란, 예측불가능하고 파괴력이 큰 새로운 양상의 재난위기 상태가 상시화 되며, 기후변화·자연재난과 같은 환경위기,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위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형평성 위기 등이 동시적이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는 기존 패러다임이나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총체적 위기를 타개할 '대담한' 혁신을 필수적으로 요한다.

- 코로나 이후의 '혁신'은 이전과 다른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 영국의 싱크탱크 네스타(Nesta)는 지난 7월, 「폐쇄 조치 이후의 혁신: 더 균형 있는 회복적 경제 재건을 위한 혁신(Innovation after lockdown: Using innovation to build a more balanced, resilient economy)」²²⁾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혁신의 목적과 방법을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사회 불평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음을 진단하며, 특히 지역(local)에서 이뤄지는 필수적인 돌봄과 대인서비스, 소규모 경제활동을 압박하고 축소시킴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진단 하에 코로나 이후의 혁신은 이전과 같

-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의 영향도 영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지역 내 돌봄과 대인서비스가 크게 위축되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지역사회의 기초 안전망과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자,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은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재난시기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는 기초 단위로서 '지역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유지해온 패러다임과 시스템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였음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용하는 '대담한 혁신'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의 목적을 무엇에 둘 것인가, '혁신'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2) 뉴노멀의 좌표, '회복력 있는 사회(Resilient Society)'

- 우리가 '혁신'의 목적지로 삼아야 하는 곳은 '회복력 있는 사회(Resilient Society)'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총체적 위기는, 사회의 '전반적인' 또는 '일반적인 복원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시적이며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자금 투입이나 임시적인 보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광범위하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위기이다.

- '회복력 있는 사회'는 "어떤 재난 또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거나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회복의 역량과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Benedikter and Fathi, 2017)²³⁾. 달리 말하면, 어떤 사회가 전반적인 자생력과 복원력을 두텁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난의 충격과 그에 따르는 위기로 인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회라 할 수 있다. Disparte & Williams(2016)은 이를 "회복력 있는 사회의 깨지지 않는 사슬(The Unbroken Chain in a Resilient Society)"²⁴⁾이라고 비유하기도

22) Harry Farmer, Madeleine Gabriel (2020), "Innovation after Lockdown Using innovation to build a more balanced, resilient economy", Nesta, UK

23) Roland Benedikter and Karim Fathi, (2017), "What is a Resilient Society?", International Policy Digest World News /17

24) Dante A. Disparte, Les Williams, (2016), "The Unbroken Chain in a Resilient Society.", International Policy Digest: Sep2016, Vol. 3 Issue 9, p109-110

했다.

- 우리는 이 연구에서 '회복력 있는 사회'의 근간으로서 '마을공동체'에 주목했다. 마을 현장의 사례와 기록들, 시민 목소리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재난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는 재난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의 생태계였으며, 근린생활권내 관계망을 통해 시민들 간에 심리적 지지와 자원을 나눔으로서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즉, 마을공동체는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재난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력 있는 사회'를 목적으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을공동체이어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이 사회 전반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 관계가 긍정적인 시너지와 파급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3) 마을공동체 회복력을 위한 정책 재구조화 필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민선 6, 7기를 거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을공동체가 생활문제 해결의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하였으며, 마을공동체가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 복지'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마을공동체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회복력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재구조화 작업을 시작해야한다.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마을회복력 현황과 시사점 등에 근거하여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 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 마을 돌봄 안전망 강화, 둘째, 마을일자리와 연계한 마을순환경제 구축, 셋째, 마을공간과 마을미디어 확대, 넷째, 마을공동체 상설 재난대책본부 구축이다. 이제부터 이 네 가지 정책방향의 필요성을 각각 개괄적으로 짚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8. 마을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방향



2. 마을 돌봄 안전망 강화

(1) 필요성

- 코로나19는 재난시기 공공시설 폐쇄 조치로 공적 돌봄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를 드러냈다.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등 시설기반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자,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돌봄을 사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이후 비싼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간에 교육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

- 돌봄 공백과 격차 문제의 해법은 국가 또는 시장이라는 선택지 이외에 제3의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이웃들이 함께 돌보고, 서로 돌보는 '사회적 돌봄'이 그 대안이다. 마을공동체의 돌봄 생태계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마을의 돌봄 안전망 강화는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방안

○ 제안1. 마을형 돌봄 모델 육성 및 활성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그동안 아동과 노인 등을 공동체 방식으로 돌보는 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마을주민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공동육아,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일상적인 상호 돌봄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모델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돌봄 모델의 사례와 경험이 만들어 지도록 지원해왔다.

- 앞으로 이러한 마을형 돌봄 모델이 마을별로 더욱 활성화되고 확산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마을형 돌봄 공동체가 재난시기 당면한 공적 돌봄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탄탄한 마을의 안전망이자 주민들의 관계망으로 자리 잡아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안2. 지역 공공의료체계와 연계된 마을 건강안전망 구축

-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역별 공공의료체계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한국의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비중은 8.9%(6만 2,581개)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21.5%) 보다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²⁵⁾ 앞으로 지역별 공공병원 확대와 병상 확보, 긴급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들이다.

- 한편, 지역사회 건강 예방과 관리는 재난시기 건강불평등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미 한국은 계층별 건강불평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재난시기 경증이라는 이유로 만성질환을 방치하거나,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 내 건강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와 같이 건강불평등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온 나라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적 회복력과 건강격차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지역별 건강지원체계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²⁶⁾²⁷⁾

- 따라서, 주민의 일상적인 건강예방·관리, 생활보건, 정신건강 지원 등을 아우르는 마

2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보도자료(2020.10.7)

26) 김동진(2013)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의 대응 정책 분석과 함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Vol. 251 (2017) pg. 71, 15 p.

27) 윤태호(2013). "건강형평 정책의 국제동향: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세계보건기구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대한의사협회의지, 56(3): 195-205.

을 단위 건강안전망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²⁸⁾ 긴급한 상황 또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한 일차 의료서비스 체계와 별도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 예방 및 보건, 상담 등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건강안전망이 필요하다. 현재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자치구별 보건소이지만, 인구 규모가 큰 서울시 자치구 특성상 보건소 전달체계만으로 모든 구민에게 생활 건강 관련 서비스를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한 마을 단위 건강안전망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제안3. 로컬랩 동네발전소 및 마을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확대

- 앞의 두 가지 제안(마을형 돌봄 모델 확대, 마을 건강안전망 구축)은 마을의 자원과 관계망,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 하여 추진되었을 때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로컬랩 동네발전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로컬랩 동네발전소는 일상의 이웃관계 회복과 정책적 공론장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마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 의제를 주민주도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그 거점 기능을 하는 로컬랩 동네발전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 뿐만 아니라, 마을 돌봄 안전망은 풀뿌리 돌봄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양적 확대와 더불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존 공모사업의 규모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3. 마을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1)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가 간 폐쇄 조치로 인해 무역이 줄어들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이 깨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면 산업구조도 변화될 것이라 예측 한다. 한편, 한국은 그동안 수출 무역형 경제 성장에 기대어 왔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정체와 산업구조의 변동은 국내 경제의 위축과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마을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필수적인 돌봄과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마을에서 이뤄지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돌봄'은 사회를 재생산하고,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였다. '사회적 돌봄'과 마을일 자리를 연계하는 '로컬 뉴딜(Local Newdeal)'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효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정책방향으로 마을 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안

○ 제안1. 마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참여소득 도입

28) 유창복·이재경·김다예, 2020,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디레저치분권연구소 기획, 책숲

- 재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며 공동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인정체계는 부재하다. 재난시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개인의 소득활동 보다 공동체를 돌보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돌봄' 역할에 대한 인정체계이자 활동 지속의 안전망으로써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여소득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보상으로 제공되는 소득'을 말한다(Atkinson, 2015).²⁹⁾ 참여소득은 활동가의 전반적인 삶의 안정성과 활동 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참여소득 도입되면 시민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동체와 사회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활동량 또한 증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사회적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김현아, 2019).³⁰⁾

- 참여소득과 유사한 모델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비민컴(B-MINCOME)' 시민소득 모델이 있다.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정책 설계 모델은 참여소득의 형태다. 지역 안에서 어떠한 형태든 고용/사회적경제/주거개선/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000유로 내외의 참여소득을 지급한다(고동현, 2018).³¹⁾ 이는 시민이 지역 돌봄과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주체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인정체계로서 적정수준의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되는 모델을 실험한 사례이다.

○ 제안2. 마을 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모델 개발

-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역과 생활권 안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거리 배달, 택배 서비스,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대표적이다. 한편, 플랫폼 기업들은 이 분야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영역을 확장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양의 배송업무를 떠맡은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자 수요를 이용해 급성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마을관리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마을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지역 안에서 다양한 필수 노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NGO, 마을기업, 자생적 주민모임 등이 지역이라는 단위별로 모이고, 이런 공급자들(일거리)이 지역의 수요와 연결되는 사회적 플랫폼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북구 삼양동에서 실험하고 있는 '삼양동 마을관리소' 모델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9) 앤서니 B.엡킨슨, 2015, 『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30) 김현아, 2019, <토론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 참여소득을 중심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 "강한 시민사회포럼"(2019. 6. 20)

31) 고동현, 2018,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 LAB2050 블로그

4. 마을공간 및 마을미디어 확대

(1) 필요성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적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은 소규모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재난시 국가가 제공하는 기반시설 인프라가 취약해졌을 때, 근린생활권 내 작은 마을공간들이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공동체의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다. 마을 공간은 사회적 돌봄과 심리적 방어의 공간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 재난 상황에서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재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소통 채널 기능도 한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지역 재난 상황과 주민들의 상태가 공유됨으로써 서로 조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공동체에서 재난 극복을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원 연계의 방법도 마을미디어를 통해 확산 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그동안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정책이 뿌린 씨앗들이 재난시기에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2) 정책방안

○ 제안1. 근린생활권 소규모 마을공간 확대

- 서울시 1~2기,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은 현장밀착형 마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서울 전역에 주민주도 공동체 공간 조성을 지원해왔다. 2019년을 기준으로 마을활력소 54개

소, 마을예술창작소 100여개소 등 총 718개소의 공간을 지원했다.

-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마을공간 조성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근린생활권(도보10~30분내 거리)내에서 10인~30인 정도의 주민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작은 마을공간을 서울 전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재난 시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운영매뉴얼 지침과 방역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 제안2. 마을활동가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교육

- 재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계층은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단절되기 쉽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권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마을 내 디지털 활용력이 낮은 주민들이 온라인 채널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을활동가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을활동가들의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다시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제안3. 동단위 공동체 라디오 등 마을미디어 인프라 확대

-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공동체 라디오는 필수 생존 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는 지역의 재난 상황, 근거리에서 벌어진 긴급한 재난 사건을 제공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동 단위로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주민주도 마을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기술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5. 마을공동체(주민모임)를 주체로 하는 상설 재난대책본부 구축

(1) 필요성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재난이 '상시화' 된다는 것은 사회가 재난 이전의 상태로 단기간에 복원되기 어렵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삶의 질과 회복력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재난대응시스템은 단기적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재난 발생 후 사회를 복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 마을공동체(주민모임)을 주체로 하는 상설 재난대책본부를 구축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들의 재난 경험과 지혜를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존중하고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력과 복원력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재난시기 마을공동체를 통해 이뤄진 다양한 복구 활동, 주민들의 경험, 공유된 자원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 데이터에 기반 하여 분석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복원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이 마을공동체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돌봄 공백, 심리적 트라우마, 골목경제 타격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적절한 복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책방안

○ 제안. 마을공동체(주민모임)를 주체로 하는 상설 재난대책본부의 구축

- 마을공동체 상설 재난대책본부는 재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에 기초한 의제 설정과 주민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즉, 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있어 전문가 또는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의 집단적 지혜를 모아 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지향 한다.³²⁾

- 이 본부는 재난시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써 주민 목소리와 상황들이 지방정부(자치구, 서울시) 재난 대응에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현장 상황에 밀착된 재난 대응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또한 이 본부는 재난의 전 과정(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활동과 경험 지식들을 기록화하고, 재난이 마을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회복의 지표를 데이터로 추적한다. 이는 장기적 재난 복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32) 이영희, (2014),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사회 제104호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동현, 2018,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 LAB2050 블로그
- 김동진, 2013,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의 대응 정책 분석과 함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Vol. 251 (2017) pg. 71, 15 p
- 김도균, 2011, “환경재난과 지역사회 변화: 허베이스트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재난”, 파주:한울
- 김주현, 2020, <서울마을주간 발표자료 “마을미디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울마을미디어 코로나19 대응활동 리포트(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
- 김현아, 2019, <토론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 참여소득을 중심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 “강한시민사회포럼”(2019. 6. 20)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 (2018))』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201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백승호·이승윤, 2020, [IDEA2050_033] 사회보장개혁+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의 혁신
- 서울협치담당관·건강세상네트워크, 2020, “서울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 안현찬·구아영, 2017, 『서울시 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유창복·이재경·김다예, 2020,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기획, 책숲
- 윤태호, 2013, “건강형평 정책의 국제동향: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세계보건기구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대한의사협회의지, 56(3): 195-205.
- 앤서니 B.엡킨슨, 2015, 『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 오후·배민기·김보은, <Crisisonomy Vol.15 No.10 - Spati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Disaster Risk, Vulnerable Population and Response Capacity - The Case of Cheongju City>
- 이제연, 2015,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재난 회복력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갑·강양구, 2020,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생각의힘
- 이영희, 2014,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사회 제104호
- 정진경, 2020, “‘코로나 19’로 본 재난의 일상화와 자원봉사현장의 재구조화 방향”,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3차 자원봉사회 세미나(2020.7.6.)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8, “재난·재해지역 구호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간 유형 연구”
- 허경, 2014, <2014희망서울정책박람회 시민시장실 자료 “재난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대화”>
- Adger, W. N. & Tery P. Hughes & C. Folke & S. R. Carpenter & J. Rockström. (2005), “Social-Ecological Resilience to Coastal Disaster”. Science. 309: 1036-1039.

Cardona, O D (2003), 'The Need for Rethinking the Concepts of Vulnerability and Risk from a Holistic Perspective: A Necessary Review and Criticism for Effective Risk Management, Chapter 3 of the book 'Mapping Vulnerability: Disasters, Development and People', 2003, G. Bankoff, G. Frerks, D. Hilhorst (Ed), Earthscan Publishers, London.

Cuter, S. L. & C. G. Burton & C. T. Emrich. (2010). "Disaster Resilience Indicators for Benchmarking Baseline Conditions". Journal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7(1): 1-2.

Dante A. Disparte, Les Williams (2016), "The Unbroken Chain in a Resilient Society.", International Policy Digest; Sep2016, Vol. 3 Issue 9, p109-110

Harry Farmer, Madeleine Gabriel (2020), "Innovation after Lockdown Using innovation to build a more balanced, resilient economy", Nesta, UK
Roland Benedikter and Karim Fathi (2017), "What is a Resilient Society?", International Policy Digest World News /17

Timmerman, P. (1981), "Vulnerability, Resilience and the Collapse of Society.", Environmental Monograph -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Environmental Monograph -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1981, 1) 42p.

부록1

설문지-마을지기

A3-2. 위에서 응답한 지원사업의 진행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교류/네트워크 확대 ② 일자리 기회 확대 ③ 생활 문제 해결 지원
 ④ 여가생활 질적 만족도 향상 ⑤ 기타()

A3-3. 위에서 응답한 지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B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

※ '코로나19 발생 이전'은 코로나19 의심환자 한국 첫 발생일 이전(2020년 1월 8일)을 의미합니다.
 B문항들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B1. 코로나 이전(2019년)에 진행한 마을공동체 활동 주요 의제는 무엇입니까?

- ① 문화공동체 : 예술, 문화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영위와 친목 및 교류를 위한 동아리활동
 ② 생활공동체 : 먹거리, 도시농업, 주민자치 등 생활문제해결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미디어활동
 ③ 경제공동체 : 마을기업, 공간 및 지역 프로그램 운영 주민지원활동 등 경제적 활동
 ④ 주거공동체 :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 등 마을 물리적 공간(하드웨어) 변화를 위한 활동
 ⑤ 돌봄교육공동체 : 공동육아/보육, 돌봄, 교육 등 학습과 돌봄을 위한 공동체 활동
 ⑥ 기타 ()

B2. 코로나 이전(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반경(공간적 범위)은 주로 어떠했습니까?

- ① 도보 10분내 ② 도보 30분내 ③ 1~2개 ④ 3~5개 동
 ⑤ 활동지역구 전체 ⑥ 타 지역구 ⑦ 기타 ()

B3. 코로나 이전(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 공간은 어디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

- ①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 ② 지역단체/마을기업공간 ③ 마을활력소
 ④ 동네카페(프랜차이즈 포함) ⑤ 지인공간(집/사무실)
 ⑥ 본인공간(집/사무실) ⑦ 기타 ()

B4. 코로나 이전(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들과의 교류와 만남은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① 주1회 ② 주2~3회 ③ 주 4회 이상 ④ 월 1회
 ⑤ 월 2~3회 이상 ⑥ 기타 ()

B5. 코로나 이전(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 구성원 규모는 어떠했습니까?

- ① 5인 미만 ② 6~10인 미만 ③ 11~20인 미만
 ④ 21~50인 미만 ⑤ 51~100인 미만 ⑥ 기타 ()

B6. 코로나 이전(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가장 큰 지출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공간이용료(임대료) ② 인건비(사례비 포함) ③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이용료
 ④ 식비/다과비 ⑤ 홍보물 제작비 ⑥ 기타()

B7. 코로나 이전(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 ① 예 (→ B7-1로 이동) ② 아니오

B7-1. (위 문항의 '예' 응답자만)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유사 문제와 관심사를 가진 이웃 또는 커뮤니티 연계/발굴 어려움
- ② 공간 부재 및 시설 미비(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활동할 공간/시설의 부재)
-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연계 혹은 자체 역량 강화 어려움
- ④ 타 마을공동체와의 이해관계 충돌 발생
- ⑤ 무임승차하는 이웃이 많아짐에 따른 동기 저하
- ⑥ 마을공동체/사업 규모 확장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 발생
- ⑦ 지역 내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영향
- ⑧ 기타()

C2. 귀하가 올해 진행하려 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 ①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서 계획된 활동을 최대한 진행
- ② 활동규모를 축소하고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진행
- ③ 코로나19 종식 될 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킴
- ④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다가 사업/활동 내용 변경하여 축소 운영 준비중
- ⑤ 전면적 활동 축소 또는 폐업
- ⑥ 코로나19 이전과 변화없음
- ⑦ 원래 계획대로 진행중임
- ⑧ 기타 ()

C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간(이하 코로나19 기간)'은 한국 내 첫 대규모 유행을 예고한 신천지 대구 교회 확진자(2/20 38명) 발생 후 위기경보단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현재 까지입니다.

C1.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C1-1로 이동) ② 아니오 (→ C-2로 이동)

C1-1. (위 문항의 '예' 응답자만)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 중복체크 가능

- ① 공적 기관(동주민센터 등) ② 지역단체/마을기업공간 ③ 마을활력소
- ④ 동네카페(프랜차이즈 포함) ⑤ 지인공간(집/사무실)
- ⑥ 본인공간(집/사무실) ⑦ 야외 공간 ⑧ 기타()

C3.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중복체크 가능

- ① 구체적이지 않은 위기경보단계별 지침과 활동/공간운영 매뉴얼
- ② 복지 공백에 따라 증가하는 마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감
- ③ 전면적 활동 축소에 따른 마을 활동 촉진 그룹(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 적극적인 주민)의 우울 상태 지속
- ④ 전면적 활동 축소 또는 폐업에 따른 마을 활동 주요 그룹의 경제적 손실 또는 경제적 어려움
- ⑤ 비대면 화상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디지털 도구 활용의 어려움
- ⑥ 비대면 활동 대응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 발생(공간,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이용료 발생 및 전문가 인건비 증가 등)
- ⑦ 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이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근본적 의문
- ⑧ 이동제한, 개인정보수집 등 공권력의 남용에 따른 개인 활동 위축 및 제약
- ⑨ 기타 ()

C4. 코로나 발생 후 귀하의 마을공동체 활동변화와 관련하여 동의 정도를 체크해주세요.(매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크하시는 바로 기재해주세요)

내용	변화의 정도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규모가 커졌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아니다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의 연령대가 높아졌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아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마을공동체 모임의 횟수가 줄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아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밴드, 카톡 등)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아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밴드, 카톡 등)에서 소통하는 게시글과 댓글의 수가 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아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화상 회의가 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아니다

D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응 활동 현황

D1.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 위기 발생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D2.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제안/참여하셨나요?

- ① 예 (→ D2-1로 이동) ② 아니오 (→ D-3로 이동)

D2-1. (위 문항의 '예' 응답자만) 어떤 코로나 대응 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방역 및 예방 활동 (예. 소독 자원봉사, 마스크 제작 등)
 ② 심리 방역 활동(예. 온라인 응원 캠페인, 유튜브 합창단, 안부 묻기, 심리테라피 프로그램 등)
 ③ 돌봄 활동 (예. 어르신 돌봄, 품앗이 아이 돌봄, 반찬 나눔, 생필품 나눔)
 ④ 경제 활성화 관련 활동 (예. 화훼농가돕기 구매 캠페인, 지역상품권 사용 캠페인 등)
 ⑤ 기타()

D2-2. 질문에 응답한 활동은 누가 주관한 활동이었나요? * 중복체크 가능

- ① 자체활동 ②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③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④ 동주민자치위원회 ⑤ 지역 시민사회단체 ⑥ 기타()

D2-3. 위에서 응답한 활동의 활동 시기, 횟수, 참여자수 를 적어주세요.

활동 시기	2020년 ()월 ~ ()월
활동 횟수	누적 총 ()회
활동 참여자수	누적 총 ()명

D2-4. 코로나19 위기 극복 활동 참여 효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되었나요?

내용	(매우그렇지 않다)-정도-(매우 그렇다)					
1) 재난 시기 취약한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1	2	3	4	5	6
2) 나의 활동으로 인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이웃의 피드백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	1	2	3	4	5	6
3)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심적인 보상을 받았다	1	2	3	4	5	6
4) 활동할 수 없는 시기에 코로나19 위기극복 활동을 통해 코로나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	2	3	4	5	6
5) 마을공동체 활동의 새로운 참여 주민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	2	3	4	5	6

F2-2.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간 및 시설 지원
- ②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 ③ 네트워크 연계
- ④ 인건비 지원
- ⑤ 임대료 지원
- ⑥ 각종 디지털 장비 지원
- ⑦ 생활비 대출 지원
- ⑧ 우울감 극복을 위한 크고 작은 프로그램 지원
- ⑨ 기타 ()

F2-3. (질문에 '② 아니오'라고 응답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국가 재정 부담
- ② 마을공동체 지원그룹의 역량 부족
- ③ 더 필요한 곳에 재정 지원
- ④ 국가위기시 국란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활동의 의미 중요
- 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전면적 마을활동을 축소하고 안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 ⑥ 기타 ()

G 코로나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망과 정책 과제

G1. 귀하는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G1-1로 이동) ② 아니오 (→ G2로 이동)

G1-1. (위에서 '예'로 응답한 분만) 코로나 확산 이후 가장 필요한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공동체 : 예술, 문화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영위와 친목 및 교류를 위한 동아리활동
- ② 생활공동체 : 먹거리, 도시농업, 주민자치 등 생활문제해결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미디어활동
- ③ 경제공동체 : 마을기업, 공간 및 지역 프로그램 운영 주민지원활동 등 경제적 활동
- ④ 주거공동체 :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 등 마을 물리적 공간(하드웨어) 변화를 위한 활동
- ⑤ 돌봄교육공동체 : 공동육아/보육, 돌봄, 교육 등 학습과 돌봄을 위한 공동체 활동
- ⑥ 기타 ()

G2. 귀하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 두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마을공동체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 ② 마을지원그룹 지원 역량 제고
- ③ 예산지원을 위한 행정 혁신
- ④ 지역 내 정치(의사결정구조) 혁신
- ⑤ 대면/비대면을 병행하는 다양한 소통방식의 발굴
- ⑥ 없음
- ⑦ 기타 ()

G3. 코로나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할 지원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복체크 가능

- 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② 다양한 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 ③ 대상 맞춤 돌봄 프로그램 확대/지원
- ④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 ⑤ 지역 일자리 예산 지원
- ⑥ 마을공간 지원 정책
- ⑦ 온라인 마을총회 운영
- ⑩ 기타 ()

G4. 시대변화에 발맞춰 향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복체크 가능(2개까지)

- ① 주민 생활 의제 및 수요와 직결된 정책 발굴 및 역량과 예산 집중 편성
- ② 마을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절차와 방식 개발
- ③ 마을단위 상설적 재난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 ④ 행정전달체계 및 의사결정구조 혁신
- ⑤ 지역 일자리 지원 예산 증액
- ⑥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치측정 체계 혁신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정체계 구축
- ⑦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정책 개발
- ⑧ 단순 찬반이 아닌 숙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
- ⑨ 기타 ()

응답자 정보

일반사항	
항목	응답(해당사항)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80대 이상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
현재직업	1. 학생(초/중/고/대/대학원 등) 2. 시민사회단체/풀뿌리/비영리단체 등 활동가 3. 생산/서비스관련직종 4. 문화예술관련직종 5. 자영업 6. 사무/관리직 7. 전문직 8. 전업주부 9. 교육관련직종 10. 기타 ()
성별	① 정규직 ② 프리랜서 ③ 기타 ()

[필수] 답례품(모바일상품권) 수령가능한 모바일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2

설문지-마을지원그룹

A3-1. (위 문항의 '예' 응답자만) 어떤 코로나 대응 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방역 및 예방 활동 (예. 소독 자원봉사, 마스크 제작 등)
- ② 심리 방역 활동(예. 온라인 응원 캠페인, 유튜브 합창단, 안부 묻기, 심리테라피 프로그램 등)
- ③ 돌봄 활동 (예. 어르신 돌봄, 품앗이 아이 돌봄, 반찬 나눔, 생필품 나눔)
- ④ 경제 활성화 관련 활동 (예. 화훼농가돕기 구매 캠페인, 지역상품권 사용 캠페인 등)
- ⑤ 기타()

A3-2. 질문에 응답한 활동은 누가 주관한 활동이었나요? * 중복체크 가능

- ① 자체활동 ②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③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④ 동주민자치위원회 ⑤ 지역 시민사회단체 ⑥ 기타()

A3-3. 위에서 응답한 활동의 활동 시기, 횟수, 참여자수 를 적어주세요. 활동 분야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활동 시기	일반사항	참여 주민수
① 방역 및 예방 활동	2020년 ()월 ~ ()월	누적 총 ()회	누적 총 ()회
② 심리 방역 활동	2020년 ()월 ~ ()월	누적 총 ()회	누적 총 ()회
③ 돌봄 활동	2020년 ()월 ~ ()월	누적 총 ()회	누적 총 ()회
④ 경제 활성화 관련 활동	2020년 ()월 ~ ()월	누적 총 ()회	누적 총 ()회
⑤ 기타()	2020년 ()월 ~ ()월	누적 총 ()회	누적 총 ()회

A3-4. 위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면서 힘들었던 점 또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시오. *주관식 작성

A4.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감하시는 바로 기재해주세요)

구분	변화내용	비고(증감정도)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주민의 문의가	①매우 줄었다. ②약간 줄었다 ③변함없다 ④약간 늘었다 ⑤매우 늘었다	누적 총 ()회
마을사업지기와의 사업관련 소통과 교류가 (온라인 포함)		누적 총 ()회
대면으로 만나는 마을공동체 모임의 횟수가		
대면 활동시 주민 1인당 지원인력이		1인당 () %
온라인 콘텐츠 월별 업로드 횟수가		() %
온라인 콘텐츠(영상, 뉴스레터 등) 조회수가 *해당기간 전후 최대 조회수 콘텐츠 비교 또는 전반적인 체감 조회수 비교		() %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이		() %
작년 대비 상반기 집행율이		() %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규모가(오/온프라인)		()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주민의 등장이		

A5.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 자치구에 남은 성과 또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작성

B2.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2020. 8. 30 ~ 9. 6)동안 많은 공공시설의 폐쇄에 따른 복지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은 운영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한다
- ②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모르겠다

B2-1. 위의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와 단계별 마을공간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주관식 작성

B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B1. 귀하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②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B1-1. 위의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주관식 작성

B3. 코로나 이후, 가장 집중해야할(예산 등)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공동체 : 예술, 문화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영위와 친목 및 교류를 위한 동아리활동
- ② 생활공동체 : 먹거리, 도시농업, 주민자치 등 생활문제해결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미디어활동
- ③ 경제공동체 : 마을기업, 공간 및 지역 프로그램 운영 주민지원활동 등 경제적 활동
- ④ 주거공동체 :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 등 마을 물리적 공간(하드웨어) 변화를 위한 활동
- ⑤ 돌봄교육공동체 : 공동육아/보육, 돌봄, 교육 등 학습과 돌봄을 위한 공동체 활동
- ⑥ 기타 ()

B8-1. ('예'로 답하셨다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작성

B8-2. ('아니오'로 답하셨다면)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작성

※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2020-03-005호

코로나 뉴노멀시대, 마을 공동체의 변화와 지원방향

: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마을활동가 400인이 기록한 변화의 증거들

연구자 레드실버 브론즈

- 조수빈(대표, 책임연구원)
- 김현아(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공동연구원)

연구 지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전민주(센터장)
- 이지연(전략사업실장)
- 손병호(정책TF)

편집 손병호 정책TF

디자인·인쇄 ILSA6WAY (일사룩웨이) / LINX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인 전민주

발행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3층 317호(녹번동)

<http://www.seoulmaeul.org/>

02)385-2642

